

# 평화누리 통일누리

2022년 2-3월 Vol.212

**[비핵]**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근황과 미해결 과제

**[현안]** 대북선제공격은 불법, 침략행위, 전쟁범죄  
한미연합전쟁연습 위험 확인 소송

**[총회]** 2021년 총평 및 2022년 기조  
20대 대선 민심과 평통사와 진보진영의 과제



## 대북 선제 공격(타격)?

유엔헌장 위반  
(2조 4항, 51조)

헌법 위반(5조 1항)

## 침략이며, 민족공멸

## 사드 추가배치

사드로 북한 미사일  
못 막는다.

한미일 미사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 평화누리 통일누리



## [평통사 20장면 +]

- 01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기록하다



## [비핵]

- 02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미해결 과제 : 2022년 3·1 비키니 데이 대회 평통사 발표문 / 오혜란 이주연
- 06 [자료를 엮으며] 1970~1980년대 함천지역 원폭피해자들의 실태조사서 등 기록물 총 11권 발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현안]

- 09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불법이며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다! / 고영대
- 23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 나서며 / 조승현



## [총회]

- 25 2021년 평통사 사업 총괄평가 / 중앙운영위원회
- 30 2022년 사업기조 : 대중 속으로! 청년과 함께! / 중앙운영위원회
- 34 평통사 입장과 관점에서 본 20대 대선 민심과 평통사와 진보 진영의 과제 / 오혜란

## [청년]

- 39 어흥! 평화를 준비하는 한 걸음 / 김하리



## [지역소식]

- 41 광주 / 목포 / 나주 / 해남 / 논산 / 대구 / 대전충청 / 부산  
서울 / 김제 / 익산 / 인천 / 성남용인

## [씨앗기금 소식]

- 48 평통사 <사무실 마련 씨앗기금>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 [회비와 후원금]

- 49 감사합니다

## [결산보고]

- 54 2022년 1~2월

##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기록하다.


(2019.4.25.~2020년 초)



평통사 청년들이 원폭피해자 구술채록을 하는 모습

“미국, 일본의 책임을 묻고 싶다.”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기열 부협회장 구술채록 중

일제의 강제 징용과 미국의 핵무기 투하로 인한 피폭의 고통을 겪은 한국원폭피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잊힌 존재로 살아왔다.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일본과 미국의 책임인정과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한 기초적 사항이지만 해방 후 한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다.

평통사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원폭 가해 미국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 사업과 피해자 구술채록사업을 결정하고 2019년 4월 2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평통사 청년 회원들이 약 100명에 대한 구술채록을 완료했다. 청년들은 피해자 구술채록 활동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영상 촬영, 녹음, 기록하였다. 평통사는 구술채록 외에도 피해자들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1972년 합천 원폭피해자 조사서 등 4종류 총11권 분량의 기록을 책자화했다. 핵무기 피해자로 한 많은 일생을 살고, 후유증을 대물림하는 원폭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한국원폭피해자 최근 현황과 미해결 과제

## - 2022년 3·1 비키니 데이 대회 평통사 발표문 -

평통사 / 원폭 민간법정 조사팀 : 오혜란, 이주연



2022년 3월 1일, 일본 원수협 주관 비키니데이 대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하는 이주연 회원

<편집자 주> 1954년 3월 1일, 미국은 서태평양 마셜 제도의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 일명 ‘브라보’ 실험의 수소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000배(TNT 15Mt)에 달했으며, 이 실험으로 인해 비키니 섬 일대의 현주민들이 대거 방사능 피폭을 당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미 군정과 일본 정부에 억눌려 왔던 반핵평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일본에서의 반핵평화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매년 3월 1일을 전후로 개최되는 ‘비키니 데이(Bikini Day)’는 수소폭탄 실험의 희생자를 기리고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국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로 68주년을 맞는 비키니 데이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지렛대 삼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일본 정부가 지체 없이 조약을 서명/비준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폭피해, 비키니 섬과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의 피해를 폭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자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평통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일본 원수협의 초청을 받아 2일자 원자폭탄 관련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원폭피해자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했다.

## 배경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한국인(조선인)은 약 7만~10만여 명, 사망자는 5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살아남은 피폭자 4만 3천여 명은 해방 후 고향(한반도)으로 돌아왔으나 피폭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죽어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한국 피폭 1세는 현재(2021.12.31) 1,992명에 불과하다.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에 등록된 피폭 2세들은 현재(2021.12.31) 2,798명이다. 2013년 경상남도가 원폭 피해 1, 2, 3세 1,125명을 조사했는데 전체 답변자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의 원폭 2세 환자 1,300여 명은 핵무기의 피해가 영구적이며 대물림된다는 것을 존재로서 증명한다.

한국원폭피해자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피억압 민족이었던 조선인(한국인)이라는 점, 20세기 최대의 사건인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라는 3중의 피해자이다. 이에 한국원폭피해자의 요구는 한미일 정부를 상대로 존재 인정, 조사, 미일 정부의 책임인정과 사죄, 배·보상으로 압축할 수 있다.

##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및 미해결 과제

일본 정부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원호법 적용에서 배제했고 차별했다. 이에 한국원폭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투쟁은 1970년부터 개별 소송을 통해 차별을 극복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6년부터는 한국 피폭자도 일본 피폭자와 동등한 의료지원을 받게 되었다.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 중 미해결 과제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왜곡 중단 및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 및 미해결 과제

해방 후 역대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 2~3세대들은 수십 년 동안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제정, 피해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 마련,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것을 요구해왔다.

2016년 5월, 한국 국회에서 한국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되었다. 그러나 피해 2세~3세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2~3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and 원폭 피해 유전성 조사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0년부터 한국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제2의 피폭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이 흩어져 있거나 유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평통사>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함께 원폭피해자 관련 기록을 모으고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2월, 1970년대 합천 지역 원폭피해자 관련 기록인 「1972년 합천 원폭피해자 조사서」 등 총 4종류, 11권의 자료를 책자로 발간했다. 또 2019년부터 100여 분의 피해자 구술 증언을 받았으며 추후 책자로 펴낼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 1세의 평균연령이 87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가적 구술채록이 시급하다.

##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와 민간법정 준비

미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노력은 2015년, NPT 9차 평가 회의에서의 피해자들의 호소로부터 시작되었다. 심진태와 김봉대(김형률 부친)는 각국에서 참가한 평화단체 대표들에게 미국 정부의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함께 전개하자고 역설하였다. 김형률은 생전에 원폭 피해 2세들의 원폭 후유증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알리는데 생을 바쳤다. 그는 반드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피해 1세들이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데서 촉진자 역할을 하였다.

“피폭자들이 힘을 합쳐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책임을 묻자…。 세계평화의 상징 유엔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행동하자. 핵무기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피폭자 연대를 만들어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피폭자 지원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도 끌어내자”(2015.5.1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민간법정 추진 결정은 “피해자가 있는데 책임지는 가해자가 없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면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원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평통사는 심진태, 김봉대와 함께 미국 법정에서의 소송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주권면제라는 국제법과 전투 중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미 국내법의 제약에 막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유보하였다.

이에 근거해 한국원폭피해자들은 먼저 민간법정을 열어 미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을 다음 민간법정을 통해 다진 내용과 근거를 토대로 실제 소송의 길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법정 준비 활동은 2025년~2026년, 미국에서 민간법정을 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그때까지 한국 국내에서 토론회, 일본과 미국에서 2~3회 국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법정 준비모임은 매달 한 차례 회의 및 세미나, 시모다 재판 판례,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과 재판관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의 정보공개, 자료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후 일본 자료 및 한국 내 자료 조사도 진행할 것이다. 소송의 원고로 나설 분들의 연세가 80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몇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라는 높은 벽에 부담을 가진 능력 있는 학자와 단체들이 이 모임에 참여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취지에 동의하는 법률가들을 모아 반핵법률가협회를 구성하자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선 경험을 가진 일본 원수협, 반핵법률가협회, 미국 내 활동단체들의 지원과 참여는 민간법정의 성과적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다른 길에서도 연대를 다져나가자! 

## [자료를 엮으며] 1970-1980년대 합천지역 원폭 피해자들의 실태조사서 등 기록물 총 11권 발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편집자 주> 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이 1970년대 합천지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관련 기록을 자료화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평통사 청년들이 합천원폭자료관을 여러 차례 오가며 스캔 작업을 진행, 한국원폭피해자 조사 자료집을 2022년 3월 발간했다. 이 자료집들은 원폭자료관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등에 납본하여 한국원폭피해자들의 연구 자료로 쓰이게 할 예정이다. 자료집을 엮으며 쓴 평통사의 서문을 싣는다.



1970-1980년대 합천지역의 원폭피해자들의 자료를 묶어 총 11권으로 펴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폭 1세는 1,992명(2021년 12월 31일 기준)만 남아 있습니다.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핵의 참상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이들의 평균나이는 86세로 몇 년 후면 피폭의 산 증거가 모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피폭 2, 3세 후손들은 일부 암·만성질환과 희귀 중증 질환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는데도 지금까지 부모의 피폭과 후손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가 2019년부터 수집한 피폭자 증언서를 분석한 국제신문에 따르면 피폭 1~2세가 동시에 아픈 경우는 63%로, 피폭의 고통은 대물림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일본에 이어 제2의 피폭 국가인 한국이 피폭 76년이 다 되도록 단 한번도 한국원폭피해자 규모와 피해정도,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이 흩어져 있거나 유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원폭 민간법정〉 준비 세미나에서 1970년대 합천지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관련 기록을 자료화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제기했습니다.

1970년대 합천지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관련 기록들은 심진태 지부장이 “이게 다 역사고, 훗날엔 분명 필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장 한 장 서류철로 만들어 보관해왔던 것인데 작성된 지 50여년이 지난 것이라 종이가 낡고 부스러진 부분이 꽤 되어 보존이 시급했습니다.


원폭피해자 구술 채록 활동을 벌이는 평통사 청년들이 2020년~2021년까지 여러 차례 합천원폭자료관을 오가며 스캔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종이가 부스러질까 걱정되어 총 11권, 4,000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스캔했습니다.

자료의 생산 목적과 경위, 배경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자료설명에는 심진태 지부장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언론보도와 인터넷을 뒤져 보완했습니다. 또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원폭피해자 활동역사를 일지형식으로 정리하여 첨부했습니다.

심진태 지부장의 증언과 관련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국원폭피해자들과 일본 핵금회회가 파견한 <속죄의 의료단>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풍부한 자료 해설을 기대합니다.

「1972년 합천 원폭피해자 조사서」, 『1972년 회원 신상기록부 (총 3권)』,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1975년」, 『1970-80년대 회원 신상 카드 (총 6권)』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창립 초기인 1970-80년대 합천지역 원폭피해자의 실태 파악과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활동 역사를 복원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입니다.

이들 기록은 피폭 27년~35년이 지난 1970~80년대, 피폭 1세들의 청·장년기의 기억을 바탕으로 피해 지점에 간 사유, 근무지 및 당시 직업, 피폭 당시 위치 등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어 일제의 강제 동원, 미국의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추적하는 데서도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유실된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피폭의 참상을 알리고 원폭 투하의 불법성을 입증함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료를 얻는데 지원해주신 4.9 통일평화재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불법이며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윤석열 후보가 대북 선제공격(타격)론을 주장한 이래 이를 둘러싼 대선 후보 진영 간, 언론상의 논쟁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만큼 차기 정권의 남북,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 사안임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들 논쟁은 대부분 대북 선제공격(타격)의 실효성과 후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작 보다 중요한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는 비켜가고 있다. 극히 일부 논자만이 대북 선제공격(타격)의 적법성과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극히 일면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유엔헌장과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침략 행위이자 전쟁범죄다. 이하 선제공격은 선제타격을 함의한다. 선제타격을 규모가 축소된 선제공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나 적법성, 정당성, 후과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다.

### 대북 선제공격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유엔헌장은 2조 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제공격을 비롯한 모든 전쟁을 절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로써 유엔헌장은 역사상 최초로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불법적, 부당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jus ad bellum, 개전권)를 전면 박탈했다.



## 유엔 헌장 2조 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헌장은, 다만, 51조에서 “ ...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 ...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self-defence)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무력행사 금지(2조 4항)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선제공

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한 무력행사, 곧 방어적 목적의 전쟁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합법적 무력행사, 정당한 전쟁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을 해오지 않는 한 대북 선제공격은 그 어떤 경우와 방식에도 불구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불법적, 부당한 무력행사로 된다.

그렇지만 미국은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ce)은 “관습법상 주권국가의 고유 권리”(『전쟁법 해설서』, 국방부, 2013)라며 상대방의 무력공격(선제)이 명백히 예상되는 ‘급박성(imminence)’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관습법상 자위권에 의거해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미국은 선제적 자위권을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합법적 무력행사라고 주장한다. 관습법상 자위권을 인정해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을 선제공격을 포함한 광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롤라인호 사건(1837)을 다룬 다니엘 웹스터 당시 미 국무장관의 외교서신(1841)과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1940.4.9)을 다룬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의 판결(1946) 등을 그 근거로 든다.

캐롤라인호 사건이란 캐나다 독립을 꾀하는 반군을 지원한 미 국적의 민간 선박인 캐롤라인호를 영국군이 미 항구에서 나포해 방화한 사건을 말하며, 십여 명의 미국인 사상자와 부상자,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웹스터 장관이 영국에 보낸

서한(1841)을 영국이 미국 영해 침범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수용(1842)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서한에서 웹스터는 “영국 정부는 어떤 수단의 선택도 어떤 속고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 급박하고(‘instant’) 압도적인 자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그 순간의 필요성에 의해 캐나다 지방 당국이 미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영국 정부는 이들이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https://avalon.law.yale.edu/19th\\_century/br-1842d.asp](https://avalon.law.yale.edu/19th_century/br-1842d.asp))고 주장했다.

웹스터 서한은 영국군의 미국 영토 진입과 캐롤라인호 공격을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으로 인정한다는 가정-실제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음-하에 영국군이 자위권을 행사할 만한 ‘급박성’이 없었으며 비례성을 넘어서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무력행사를 했다는 항의였다. 따라서 웹스터 서한이 강조하는 ‘급박성’이란 이미 발생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피공격 국가의 자위권 발동 요건으로서의 ‘급박성’을 제시한 것이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무력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공격의 ‘급박성’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웹스터 서한은 이를 재확인해 준다. 웹스터는 서한에서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급박하고 극단적인 필요성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타국에게도 그 타국의 지방 정부(캐나다) 법을 위반했을 수 있거나 또는 그 타국법 하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무시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미국 영토를 침범해 체포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파괴할 권한을 결코 부여할 수 없다.(This Government can never concede to any foreign government the power, except in a case of the most urgent and extreme necessity, of invading its territory, either to arrest the persons or destroy the property of those who may have violated the municipal laws of such foreign government or have disregarded their obligations arising under the law of nations.)”고 언급함으로써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대방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의 ‘급박함’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무력공격을 가정한 조건에서 자위의 ‘급박함’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선제공격을 포함한 전쟁이 합법이던 당시 상황에서 굳이 ‘급박성’을 명분삼아 자위권 개념을 확장해 선제공격을 할 필

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급박성’의 요건만 갖추면 상대방의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상대방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웹스터 서한의 ‘급박성’의 의미를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는 의도에 맞춰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사건 당시 캐롤라인호는 미 항구에 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더욱이 당시 미국은 영국(캐나다)에 무력공격을 하지 않았다. 영국군이 미국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캐롤라인호가 캐나다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영국군이 캐롤라인호를 무력공격한 것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무분별한 대미 선제공격이거나 긴급피난일 뿐이다. 이에 영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무력공격이 발생할 ‘급박성’도 없었던 캐롤라인호 사건을 사례로 들어 상대방의 무력공격이 ‘급박한’ 조건에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미국과 선제적 자위권 옹호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침공(굵은 화살표), 영국 등 연합군의 노르웨이 상륙점령 시도(점선 화살표)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에 대해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는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노르웨이 상륙/점령을 막기 위한 자위 행위라는 피고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웹스터의 자위권 행사 요건-‘급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법 행위로 판결했다. 군사재판소는 독일이 “덴마크·노르웨이 침공 계획 단계와 침공 당시에는 영국의 이 국가들에 대한 상륙 계획을 알지 못”(Tibori Szabó, K.J., 2010년)했으며, “(독일의) 노르웨이에 대한 공격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것은 ‘급박한’ 영국의 노르웨이 상

륙/점령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껏해야 미래 어느 날의 영국의 노르웨이 상륙/점령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https://avalon.law.yale.edu/imt/juddenma.asp>)며 영국의 독일에 대한 무력공격의 ‘급박성’을 부정하였다.

군사재판소의 판단처럼 독일에 대한 영국·프랑스군의 위협은 급박하지 않았다. 당시 연합군의 독일에 대한 침공 위협은, 덴마크·노르웨이가 독일을 침공할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영국·프랑스군의 노르웨이 상륙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어서 독일에 대한 노르웨이·덴마크 방면에서의 ‘급박한’ 위협은 없었다. 이에 영·프 연합군의 독일 침공이 없는 조건에서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은 자위권 행사가 아니며 두말할 나위 없는 불법이다. 설령 독일의 우려대로 연합군이 노르웨이를 점령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독일에 대한 침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연맹 규약이나 부전조약 등 당시 국제법에 의거해서도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은 명백히 침략이다.

그러나 피고측은 부전조약 체결을 위해 미국이 보낸 통첩의 맹점-“모든 국가는 공격이나 침략에 대하여 자국의 영토를 방위할 자유가 있으며, 당시 사정이 자위를 위해 전쟁에 호소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은 그 국가만이 갖는다.”(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 9판)-을 악용해 “독일만이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덴마크·노르웨이에 대한 선제공격)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위 개념의 부당한 확장을 꾀했다. 그러나 군사재판소는 재판소의 조사와 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자위권 행사라는 피고측 변론을 일축했다. 그렇지만 재판소는 통첩상의 자위를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써의 전쟁을 포기한 부전조약의 취지와 통첩 내용에 따라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웹스터의 자위 요건-‘급박성’-을 적용하는데 매달렸다. 통첩은 개별 국가의 자위권 발동 요건을 명백히 “공격과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영토 방어(defend its territory from attack or invasion)”로 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유엔헌장 51조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군사재판소의 웹스터의 자위 요건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웹스터의 자위 요건-‘급박성’-은 상대방의 무력공격을 전제로 한 자위의 ‘급박성’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연합군의 독일에 대한 무력공격이 없는 조건에서, 곧 독일의 자위의 ‘급박성’이 없는 조건에서 이를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중립 작전-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군사재판소가 웹스터의 자위권 발동 요건-‘급박성’-을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에 적용하면서 연합군의 노르웨이 상륙 시점을 기준으로 ‘급박성’ 여부를 판단했다. 이는 연합군의 노르웨이 상륙으로 노르웨이의 중립성이 훼손되었을 때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무력공격이 급박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연합군의 노르웨이 상륙/점령 시점이 연합군의 독일에 대한 선제 무력공격의 ‘급박성’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사재판소가 웹스터의 자위 요건-‘급박성’-을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 재판에 적용한 것은 오류이며, 이에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 재판은 선제적 자위권 개념을 적용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듯 캐롤라인호 사건과 웹스터 서한,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공과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판결을 선제적 자위권을 허용한 사례로 들거나 적용의 기준으로 드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가 선제공격을 전면 불법화한 유엔헌장 창설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자위의 이름으로 선제공격을 허용한 적이 없음을 말해 준다.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국 대 니카라과 사건(Nicaragua Case) 심리에서 국제관습법상 자위권을 검토해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만이 자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고 판시(김대순, 『국제법론』 10판)하였다. 과거 관습법상 자위권에 대한 ICJ 판결은 비록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직접적 판결은 아니지만 선제공격 발생을 전제로 한 자위권을 다룸으로써 우회적으로 선제적 자위권과 선제공격을 부정한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서 “무력의 사용과 무력 사용의 위협의 금지는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국제관습법상 규범이고 유엔헌장 2조 4항은 이 규범을 성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김승호, 「Nicaragua Case」). 유엔헌장 51조가 이미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원칙은 이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어떤 일탈과 위반도 허용되지 않은 국제법 규범-으로 되”어 “이 원칙에 위배되는 일체의 조약과 지역 관습 그리고 기타 사태는 당연 무효”(김대순, 『국제법론』 10판)다. 또한 유엔 창설 후 “다수 국가들의 태도는 명백히 선제적 자위권 개념을 수락하고 있지 않으며”, “선제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관행 역시 성립되어 있지 않다.”(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10판). 선제적 자위권과 선제공격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아무 데도 없다.

무력행사 금지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법 원칙과 규범에서 국제사회가 이룩해 낸 이상의 성과에 비취 볼 때 지난 시기의 관습법을 들어 선제적 자위권 행사와 선제공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기도는 분명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관습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자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대역행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 개념을 추가 확장해 합법적 선제공격 영역의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 공격을 계기로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급박성’의 요건을 더욱 완화해 “비록 적의 공격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미국 「2002/2006 국가안보전략」, 국방부, 『전쟁법 해설서』, 2013)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Preventive Self-defense)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건설 초기에 있던 이라크 오시라크 핵발전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1981)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라크 침공(2003)은 미국이 감행한 예방공격의 대표적 사례다. 오시라크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제487)로 비난을 받았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당했다.

9·11 테러 공격 이전에 미국이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감행한 선제공격-니카라과(1981), 리비아(1986), 아프가니스탄·수단(빈 라덴 기지, 1998) 등-도 사실상 선제적 자위권 행사가 아닌 위법적인 예방공격/전쟁이었다. 이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선제 무력공격도 하지 않았으며, 급박한 무력공격을 가할 명백한 징후도 없었다. 그

런데도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1994년 5월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기도도 북한의 대미 선제공격도, ‘급박한’ 선제공격의 명백한 징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위법적인 선제공격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례들로부터 미국이 내세우는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급박성’은 미국의 침략을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은 실제 상황에서 ‘급박성’의 허울을 써 조금이라도 합법성을 가장할 수 있으면 좋고 그조차 없을 때는 자위 요건과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공격을 자행해 온 것이다.

이렇듯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 개념을 자의적으로 변경, 확대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나려는 국제사회의 오랜 염원에 대한 배신이자 자신의 주도로 창설한 유엔헌장을 무력화하려는 자기 배반적 행위로 오로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선제공격 등 무차별적 침략을 자행하려는 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아니다.

#### 대북 선제공격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대한민국 헌법은 4조에서 평화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선제공격은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또한 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침략전쟁을 부정한 유엔헌장(1조 1항, 2조 4항, 39조, 51조)에 완전히 부합하며, 마땅히 정부의 대북 선제공격을 금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은 5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의 임무를 방어적인 무력행사(전쟁)로만 한정된 것이다. 이른바 ‘급박성’을 명분으로 한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군은 북한군의 대남 무력공격이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 이에 군통수권자(대통령)나 합참의장 등 군 지도자가 국군에 대북 선제공격을 명령한다면 이는 위헌으로, 부대 지휘관과 구성원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대북 선제공격은 침략행위다.

‘침략의 정의’(1974년 유엔총회 결의) 1조는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 유엔헌장 1조 1항, 39조)는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한 또는 유엔 헌장과 양립하지 않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무력의 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2조 4항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은 오늘날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erga omnes, 예외 없는) 의무에 해당하는 일반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대한 위반은 침략을 구성”한다(김석현, 2003년). 이에 대북 선제공격은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헌법 4조, 5조 1, 2항을 위반한 침략행위다.

‘침략의 정의’ 2조도 “특정 국가가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무력을 선제 행사하는 것은 침략행위의 주된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대북 선제공격이 한미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급박성’이라는 선제적 자위권의 발동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침략행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른바 선제적 자위 요건으로서의 ‘급박성’이란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을 하기 전에 대북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헌법 4조, 5조 1항 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등 남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나 징후가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남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대북 선제공격은 불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남 선제공격을 감행한 인민군에 대해 국군은 언제 대북 무력행사를 행사할 수 있을까? 곧 합법적인 방어와 격퇴에 나설 수 있을까? 그 시점은 인민군이 남한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공한 시점부터다. 군사분계선 이북에 가상으로 설정한 전술초치선

(Tactical Action Line)이 하나의 예다. 인민군 전투기가 궤도상 남한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북한 영공에서 이를 격추-격추 시 침략으로 뒀-시키지 않고 전술조치선을 넘어설 때 남한 요격기를 출동시켜 요격에 대비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영공을 침공하면 그때 요격하는 것이다. 순항/탄도미사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격 시점은 어디까지나 남한 영공을 침범한 후다. 만약 발사를 위해 이동 중이거나 발사 대기 중인 북한의 미사일을 공격하게 되면 선제공격이 되어 유엔헌장과 헌법을 위배한 불법적인 침략행위가 된다.

상대방이 선제공격한 후 방어하는 것보다 선제공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제사회가 오늘날까지 그토록 전쟁과 무력사용을 막고 이를 불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선제공격을 불법화함으로써 전쟁과 무력사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쪽이 선제공격을 합법화함으로써 전쟁과 무력행사를 전면화하고 남용하는 쪽보다 인류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데 훨씬 더 크게 복무하기 때문이다. 핵 시대이기 때문에 더 더욱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 중인 평통사 회원

선제공격을 합법화하고 허용해선 안 된다. 핵 선제 사용은 핵 선제 불사용보다 훨씬 더 핵무기의 남용을 가져오며, 더욱이 비핵국가의 핵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은 핵국가의 핵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존립 자체를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인류의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핵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다.

한미연합군이 운용 중인 작전계획 5015와 이를 갱신할 새 작전계획은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이 단지 대북 억제를 위한 연술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유엔헌장과 헌법을 위배하게 된다. 특히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 4조와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69조, 침략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 국군의 의무를 방어로 한정된 헌법 5조 2항에 반한다.

아울러 한미연합군의 현/신 작전계획은 무력의 위협과 행사를 삼가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군대에 의한 영토 점령의 포기를 천명한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유엔총회 결의, 1970년)과 ‘침략의 정의’ 등 국제법 원칙과 규범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된다. 나아가 대북 선제공격과 이에 따른 북한의 반격-그 역도 성립-은 남북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남북 국가와 민족의 주권 평등권, 자기 보존권, 생명권, 정치적 독립권/결정권, 간섭 배제권, 체제 선택권, 자유와 인권 등의 제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 대북 선제공격은 전범행위다.

전통적으로 전쟁범죄는 전쟁법규(국제인도법)를 위반한 행위만을 뜻하는 협의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의 지도자들을 전범으로 단죄하기 위한 뉘른베르크와 극동 군사재판소 헌장 이후 ‘평화에 반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포함한 광의로 사용하게 되었다. 뉘른베르크 헌장 6조 a항은 ‘평화에 반한 죄’에 대해 “침략전쟁의 기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 보장을 위반한 전쟁 또는 앞의 어느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계획 또는 공모에의 참여”로 정의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평화에 반한 죄’(침략범죄)가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미 국제사회

에 (국제관습법)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최고의 국제범죄(supreme international crime)’로 평가했다(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10판). 또한 1946년 유엔 총회가 결의 95(1)를 통해 뉘른베르크 헌장의 제 원칙을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승인함으로써 광의의 전쟁범죄는 관습법으로서의 권위를 더욱 확실히 갖게 되었다(「핵 억제 역설에 대한 국제법 관련성」, Fransis A Boyle, 1986). 나아가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1970)도 “침략전쟁은 평화를 해하는 범죄를 구성하며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은 2010년 당사국 총회(우간다 캄팔라)가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의 정의에 합의하고 이를 규정 8조 2항에 반영함으로써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헌장의 ‘침략범죄’ 정의와 유엔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를 계승하였다.

이에 유엔헌장을 위배해 위법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계획, 공모, 집행한 국가 및 군 지도자 등은 ‘평화에 반한 죄’(침략범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어 전범자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선제공격은 그 전격성으로 말미암아 과도한 무력공격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방어하는 쪽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등 필히 국제인도법(헤이그법과 제네바법)을 위반한 혐의의 전쟁범죄도 함께 수반하게 된다. 선제공격을 감행한 자들은 ‘평화에 반한 죄’와 함께 혐의의 ‘전쟁범죄’에 의해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교전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전범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

## 글을 마치며

키신저는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선제조치를 일반원칙으로 삼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문 기고를 한 바 있다(E Henry Kissinger, Beyond Baghdad, New York Post, Aug, 11, 2002, p.24 : also in Washington Post, Aug, 12, 2002). 기고에서 키신저는 공격이 ‘급박한’(imminent) 경우에 선제적 무력공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급박성’(imminence)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 시간인지, 하루인지, 한 주인지, 또는 한 세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국제법상 선제적 무

력행사의 합법성에 관한 검토」, 전순신, 2009에서 재인용) 부시 정권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주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9·11 테러 이후 미국 내·외에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 주장이 득세를 하던 시점에 미국의 안보 수장을 지낸 키신저의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금 이 시점, 특히 한반도 상황에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이중성, 삼중성을 갖고 있다. 남북관계는 한편으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남북기본합의서, 1991).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다. 남북한은 모두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서 승인을 받았으며 유엔에 가입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국제법적 주체다. 게다가 남북한은 휴전 상태에 있다. 사실상으로는 평시, 법적으로는 전시 상태다. 법적으로도 평시라는 주장도 있다.

남북한이 처한 이러한 복합적 상황 때문에 대북 선제공격에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한 유엔헌장 등의 국제법 원칙과 각종 규범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당장 휴전협정 하의 남북미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유엔헌장 2조 4항이나 51조의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북·중·미는 휴전협정 체결로 이미 서로를 교전당사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추가의 정서(1977) I / II에 의거해 국제인도법이 무력충돌의 국제적/비국제적 성격에 관계없이 적용됨에 따라 남북미 간 무력충돌이 재개되었을 경우 남북 간 특수관계가 국제인도법(헤이그법과 제네바법)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남북미 간 전투 재개의 적법성 여부만이 문제로 되며 전투 재개(개전권)와 관련해 전쟁법과 유엔헌장 중 어느 법이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는다.

김명기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공격은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즉시 전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육전의 법과 관례에 관한 법칙’ 40조를 그 근거로 든다(김명기, 「국제법상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의 위법성과 가용 법적 대응 조치의 검토」, 2012).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무력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조건에서 낮은 수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전면적인 대북 무력공격을 개시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위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넘어서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개전권을 부정하는 유엔헌장 2조 4항에 대한 위반이다. 육전규칙이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유엔헌장과 상충될 때는 유엔헌장 103조에 따라 유엔헌장이 우선한다. 더구나 유엔헌장 2조 4항은 강행규범-국가의 의지만으로 이탈할 수 없는-으로서의 지위를 지닌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휴전협정 하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마땅히 육전규칙에 우선한다.

한편 남북 어느 한쪽에 의한 선제공격 방식-유엔헌장에 위배되는-의 전투 재개는 상대방의 군대를 격멸하고 정부와 체제를 전복시키는 영토 정복-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과 전시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상대방 지역(예를 들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대한 군사점령이 아닌-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침략과 정복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헌법과 유엔헌장,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 ‘침략의 정의’ 등을 위반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와 군 지도자가 유엔헌장과 국제인도법 등 선제공격을 포함한 무력행사와 관련된 제반 국제법 원칙과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평시보다 휴전 상태에서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 휴전 상태에 미혹되어 국가 지도자와 군 지도자, 특히 군 지도자가 대북 선제공격의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사전략과 작전 수립 및 언술에서 군 지도자의 유엔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의 엄격한 준수 의식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 나서며...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12일~15일, 한미군사당국이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이후 18일 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 본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침략행위로서 명백히 유엔헌장 위반이며, 헌법 위반이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통해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의 폐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3월말까지 위헌소송 청구인을 모집하고 4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되기 때문에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성격은 한미당국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작전계획 5015 및 새롭게 작성될 신 작전계획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한미연합군이 채택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은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다. 원인철 합참의장의 “이미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이 있으며, 북한이 핵 발사에 이르지 못하도록 미리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은 이를 입증해 준다. ‘작전계획 5015’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에 의거해 수립되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미리 선제공격하는 개념이 과거 작전계획 보다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초 공세적인 작전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위헌이며, 국제법 국내법 위반

우리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5조 2항은 국군의 임무를 방어적인 무력행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표방한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한미 연합 전쟁연습은 명백히 위헌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선제) 무력 행사와 무력 사용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은 물론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참수작전, 북한군 격멸과 북한 붕괴와 점령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불필요한 과잉 살상을 금지한 전시국제법 위반이다. 나아가 유엔헌장을 위배해 위법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계획, 공모, 집행한 국가 및 군 지도자 등은 ‘평화에 반한 죄’(침략범죄)에 해당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어 전범자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전쟁을 확대/촉발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설령 제한적인 핀포인트 공격이라고 해도 필히 전면전으로 비화되므로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는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한반도/동북아에서의 핵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미, 남북, 미중, 한중 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따라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은 전쟁 위기와 공포를 증폭시키고,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지 아니하며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를 침해하며, 재산권, 주거권, 이동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처럼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에 즈음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결정에 대한 위헌 소송은 한미연합 전쟁연습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평택, 군산, 광주, 포항, 부산, 제주 등 미군 기지와 훈련장 인근의 주민들이 공동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바라는 많은 대중들이 함께함으로써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중단과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2021년 평통사 사업 총괄평가

제출: 중앙운영위원회

평통사는 2021년 총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통일의 길라잡이가 되자’, ‘교육 참가 300명, 실천·홍보 참가 300명을 세워 조직을 활성화하자’라는 사업 기조를 세웠다.

이는 새로 집권한 미국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정권에 이어 콰드, 오키스 창설 등 대중 포위와 대결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에 따라 판문점/평양 선언, 싱가포르 성명이 고사될 위기에 처한 정세가 평통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정식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00명의 열성 회원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직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반영한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2021년 사업 기조는 남북/북미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시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대행진(이하 철도 잇기 대행진)을 사업 기조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한 문제와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와 한계는 철도 잇기 대행진 사전 준비와 조직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2021년 평통사의 실천 활동은 제재 해제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북철도 잇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판문점/평양 선언이 사장될 위기, 남북/북미 관계가 고비에 처한 정세에서 대중적 접근이 쉬운 고리를 찾아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2021년 평통사는 이외에도 미국의 원폭 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 준비,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위기관리 각서 개정 중단 투쟁, 소성리 사드 철거와 불법 공사중단 현장 투쟁,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대응,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 국방예산 삭감 투쟁 등도 함께 진행했다.

평통사는 년 초부터 철도 잇기 대행진을 제안하고, 궤도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행진을 주도하였다. 평통사는 부산역에서부터 임진각 망배단까지 550km, 약 70여 일에 걸쳐 5,000명이 참가한 대행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2021년 철도 잇기 대행진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임진각 철도 중단점에 설치하였다.

평통사는 철도 잇기 대행진으로 국민 마음속에 평화·통일 열차의 노반을 깔겠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진단이 가는 곳마다 ‘엄지척’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시민들 반응이 이를 말해준다. 만약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서울 행진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철도 잇기 대행진의 정치적 파급력도 훨씬 컸을 것이며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궤도노동자들이 철도 잇기 대행진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노동자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노동자들이 나설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집중한 평통사의 헌신적 자세와 행진코스 선정, 상징 조형물, 영상 차를 동원한 영상 상영과 방송,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하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한 대중 친화적 행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동안 여러 행진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번 행진처럼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즐겁게 행진하기는 처음”이라는 철도노동자의 소감은 다른 행진과 차별성을 갖는 철도 잇기 대행진의 특징과 성과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객관정세의 어려움과 코로나19 확산, 평통사의 열악한 조직역량, 철도 잇기 대행진 추진위 참가단체들의 한계와 내외에 처진 벽 등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철도 잇기 대행진이 성과를 거둔 것은 전적으로 평통사 회원들 덕분이다. 예상보다 많은 회원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월차, 연차를 내는 등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평통사가 아니었다면 행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끌어냈다. 전국 도보행진을 두 차례나 해본 철도 노조 위원장 조차 “장마와 퇴약별을 뚫고 도보행진도 모자라 상징 조형물을 끌고 행진을 하자고 하니 한숨부터 나왔다”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을 회원들 힘으로 성공시킨 것은 실로 금지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철도 잇기 대행진의 경험과 성과를 평통사의 다른 활동 영역에도 접목해 평통사의 대중성과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호남 코스를 추가하는 안을 살리지 못한 점, 홍보용 인쇄 전단을 제작·전면 배포하지 못한 점, 문화제 방식의 캠페인을 병행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여 대행진을 평통사 조직적 토대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지 못한 것은 앞서 제기한 인식의 제한성과 함께 실무적 어려움에 매몰된 관성적, 실무기능적 태도에서 기인하는바, 성찰과 혁신이 요구된다.

2021년 평통사의 작전통제권 환수와 위기관리각서 개정 대응 투쟁은 전작권을 환수하자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방안부터 폐기해야 하며, 문재인 정권이 대미 군사적 예측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확고히 세운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를 선언하고 행사한다면, 지금이라도 전작권 환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2021년 평통사는 기성 언론이 진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속에서도 오마이 뉴스 기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작권은 조건과 군사적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 곧 국가 주권에 관한 정치적 입장과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마지막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방안에 따라 미국이 내세운 자의적 기준과 능력을 충족시키는데 매달림으로써 차기 정권하에서의 작전통제권 환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은 11차 협정 기간 최소 8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미국에 갚다 바치는 유례없는 미국 퍼주기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2021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13.9%)이 유례없이 높은 이유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인상 때문이며, 2020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41.5%인데도 동결됐다는 거짓 논리까지 동원했다. 이에 평통사는 정부의 거짓 주장과 11차 협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겨레, 중앙일보 보도를 조직하고 기자회견, 국회 공청회 진술문, 의견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제기하였다. 구체적 내용과 탄탄한 사실에 근거한 평통사의 대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으며, 만약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했다면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다.

한편 평통사는 11차 협정이 미 체결되어 2021년 예산 지출의 근거가 없는데도 방위비 분담예산을 집행한 국방·기재부 장관과 관계자에 대해, 11차 협정 체결 후에는 협정에서 합의한 액수보다 더 많은 군사 건설비를 미국에 퍼준 국방·외교부 장관을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 손실 등)으로 고발하는 등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또 평통사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축적하여 약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자소득을 올린 바, 이에 대한 세금(약 480억 원)을 징수할 것을 국세청에 제기했다. 이러한 대응은 이슈 물이식 투쟁이 아닌 방위비 분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진정성에서 나온 것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2021년 사드 철거 및 공사 저지 투쟁은 육상수송로 확보와 사드의 안정적 운용을 노린 한미당국에 맞선 주민들의 현장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미당국은 매주 화/목 두 차례 정기적으로 40~80대 규모의 공사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대규모 경찰을 동

원했다. 평통사는 철도 잇기 대행진 와중에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현장 투쟁에 참여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자칫 소극화될 수 있었던 주민투쟁에 힘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한미당국의 불법 공사에 맞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평통사는 조직역량의 한계 때문에 위력적인 현장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사드 성능개량 등의 고리를 찾아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21년 평통사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항모, 중형잠수함(핵잠) 등 원양 작전용 무기 도입을 가속함에 따라 북한, 주변국 위협 부풀리기 등 군비증강 요인을 밝히고 군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평통사는 문재인 정권하의 제동장치 없는 군비증강의 한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냉전적·대결적인 구시대적 안보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평통사는 북한과 주변국 위협 부풀리기,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계 5015 등 대북 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 한미동맹에 따른 국방비 폭증 등 군비 폭증의 요인을 분석하고 방어 위주의 전략과 작전계획 수립 및 군비축소의 기준을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총론’ 형태로 새롭게 제시하고 예산 삭감 논리와 내용을 더 탄탄히 다졌다.

이는 평화·통일연구소의 『2020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에서 축적한 내용에 힘입은 바 크다.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오마이뉴스 시리즈 기고 중 중형 잠수함(핵 잠수함)이나 F-35A 전투기 폭지가 각각 2만 회, 5만 회에 달하며 수많은 댓글 중에서도 내용에 대한 제기가 없는 것은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가 수년간 축적해온 내용 덕분이다.

평통사의 의견서를 받아본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인상적’이라는 소감이나 언론에서 “민간영역의 예산 분석이 날카로워졌”다고 평한 것은 이러한 진전을 반영한 것이다.

2021년 평통사는 변화되는 언론환경에 맞추어 평통사의 내용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이에 대한 실천적 태세도 갖추지 못했다. 대부분 언론과 방송이 정권과 보수수구 세력과 일체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더 많은 평통사 회원과 국민이 평통사의 내용을 접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언론, 영상, 홍보 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조직적 측면에서 2021년 평통사는 교육 300명, 실천 300명 체계 구축에 우선적인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월평균 290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하여 평통사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동 의미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있다. 소성리 불법 공사 저지 투쟁에도 각 지역

에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철도 잇기 대행진을 계기로 평통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는 교육과 실천을 통해 평통사 내용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대표와 운영위원, 상근자들이 평통사의 대중성과 조직적 토대 강화라는 철도 잇기 대행진의 취지를 체화하여 조직사업에 나섰더라면 더 큰 조직적 성과를 낼 수도 있었음을 말해준다.

2021년 평통사는 청년 상근자가 5명으로 늘어나 SNS 청년 플랫폼 ‘평화 똑똑이’ 개설과 운영, 2021 청년평화 아카데미 개최 및 후속 모임 구성 등 전국적, 조직적으로 청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4년간 서울 청년 모임에 참가해온 청년이 평통사 상근을 결의하고 청년평화 아카데미를 계기로 학내 모임을 구성한 것은 평통사 청년 사업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한 것으로 청년 회원과 상근자 재생산 구조가 없는 평통사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성과다.

2021년 평통사를 탈회(회적 정리)한 사람은 81명으로, 2020년의 361명보다 많이 줄었고 CMS 회비도 월평균 120만 원가량 늘었다. 이는 조금씩 조직이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회원 확대는 목표 1,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343명에 그쳐 회원 수는 3,093명(2020년 2,829명 대비 264명 증가)이며, 회원의 70% 이상이 50~60대로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평통사의 미래를 담보할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5%(180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극히 일부만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양·질적 측면에서의 조직 확대와 청년 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사람이 없다.’ ‘해볼 만큼 해 봤다’라는 식의 부정적, 소극적 자세와 주먹구구식의 회원 관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현황 파악과 일상적인 회원 소통으로 회원들을 주체로 세워 조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방안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찾고 세워야 한다. 또 청년 한명 한명을 평통사로 안내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기울이는 한편 평통사의 이론과 정책을 담당할 전문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진보 운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평통사 운동의 특성으로 볼 때 평통사의 조직적 강화는 회원 한분 한분을 평통사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에 중앙과 지역이 회원현황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회원 확대, 조직 강화에 매진하여 2022년은 조직적 반전을 이루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 대중 속으로! 청년과 함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평통사 대중화와 청년회원 확대에 힘써  
평통사를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콰드 가입을 저지하자!

제출: 중앙운영위원회

2022년은 한미일 3각 동맹, 콰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 방위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일의 기도가 강하게 한국을 옥죄어 오는 해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그 징후라면, 대만 문제 개입을 시사한 작년 5.22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53차 한미연례협의회의(SCM)에서의 신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 합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 군사동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해당한다. 미일이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중국을 겨냥한 한미, 한미일 연합/공동 작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대중 압박과 대결의 최전선으로 삼으려는 미일의 한국 옥죄기는 힘을 통한 평화 논리와 함께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미동맹을 대중 군사동맹으로,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하여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삼으려는 미일의 기도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콰드 참여 등 미국 쪽 줄서기에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한 핵 위협을 구실로 한반도에 일본(군) 개입 허용을 시사하고 미 MD 참여 필요성, 대중 3불 폐기,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배치 발언에서 보듯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과 콰드 가입의 레드라인을 넘어설 수 있다. 선 비핵화에 토대한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고 북한 인권을 문제 삼거나 흡수통일 추구 등으로 남북 대결을 격화시켜 판문점/평양 선언을 사문화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앞세운 3축 체계 구축과 첨단무기 도입, 한미/한일/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로 남북 군사합의서가 폐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강요하는 대북/대중 대결과 미국 줄서기의 결과는, 안보딜레마의 심화와 소모적인 (핵)군비 대결의 격화, 그리고 그 끝에는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는 민족

공멸의 전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갇혀서는 결코 민족과 국가, 민중의 미래를 열 수 없다. 남북협력과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 민중의 미래는 동맹(동북아 집단 방위)이 아닌 다자안보협력,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이를 위한 전력 강화가 아닌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방어전략으로의 전환과 비핵 평화군축을 실현하는 길에 있다.

따라서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선제타격과 대중 포위를 위한 한미일 3각 동맹 구축과 콰드 가담을 저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각서 개정과 신 작전 계획 수립 저지, 전작권 환수, 사드 추가배치/미 MD 참여 저지, 한국의 대만 문제 개입 반대, 한일/한호 군수지원협정 체결 저지 투쟁은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에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중요 사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념·계층·세대·성별 갈등과 정치·사회·경제적 차별, 불평등이 심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역대 대선 사상 최소인 0.73%(24만 7,077 표)에 불과하다. 대선 민심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동시에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견제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가중되는 외교안보/정치경제적 위기를 자주평화통일, 민중운동 세력이나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 삼아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매개로 멸공(반공)이념 공세, 억압과 배제, 검찰 독재와 공안 탄압으로 자신의 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될 세력을 고립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대책점에 서 있는 평통사와 사드 반대 주민들이 일차적 탄압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군축, 한미동맹 해체 등 현 시기 평통사의 정치·정책방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정세와 여론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은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도, 고립 분산적인 대응을 극복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 진보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진보는 전작권 환수,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대선 쟁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도, 보수정당의 동맹 강화와 군비확장 공약에 대비되는 동맹 해체

와 군축이라는 진보의 가치와 이의 실현경로를 제시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런 현실은 그간 평통사가 쌓아온 이론·실천적 내용이 진보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자산과 동력이 될 수 있으며, 평통사의 이론·실천적 강화와 조직적 토대의 확대는 곧 진보의 재구축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통사는 정세의 어려움과 진보의 위기를 타개하고 자주평화통일 운동의 활로를 개척할 것인가? “대중 속으로!” 가 그 답이다. 한미동맹을 신중단지 모시듯 하는 기성정당/언론 등에 기대서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평통사 중심성,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중 속으로, 회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평통사와 자주평화통일 운동의 생명줄이다.

평통사 내용을 회원과 대중 속에서 자유자재로 전개할 수 있는 탄탄한 이론/실천 역량을 구축하고 대중적으로 제시하며, 평통사를 2040 청년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자주평화통일 운동과 진보의 재구축, 나아가 민족과 국가, 민중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정세의 절실한 요구다. 향후 5년간 외교·안보 분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한일/한미일 동맹과 콰드, 맞춤형 억제전략과 신 작계 수립, 군비증강, 모병제 등에 평통사의 견해와 대안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용과 실력을 갈고 닦아 나가자. 핵무기금지조약, 확산탄금지조약 등을 활용하여 핵과 군축 문제에서도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이슈와 접근방식을 발굴하자. 철도잇기 한반도 대행진과 같은 대중 친화적 사업방식을 다른 모든 영역으로 확산해 나가자.


평통사 중심성/정체성을 구성하는 현안에 관한 내용과 실천방침을 기준으로 회원과 대중을 모아, 평통사를 확대 강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자. 이를 위해 자족적, 형식적, 개인주의적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주체의 혁신으로 교육 홍보, 조직 운영 모든 면에서 실제적 변화를 불러일으키자.

기본적인 교육과제는 평통사 핵심 현안에 대한 학습을 치열하게 벌여 평통사의 정치·정책, 실천방침을 완전히 체화하고 회원과 대중에 밀착된 교육과 정치사업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교육 400명/실천 400명 체계를 통한 내실 있는 정례학습은 그 기본이다. 여기에 중앙 차원의 계기별, 분기별 워크숍 등 중앙과 지역 차원의 의견교환과 교육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통일성을 강화하자. 한미동맹 대중서 발간 등 현안에 대한 간결하고 쉬운 내용의 교재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평화 아카데미 등 대중적 교육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자.

철도 잇기 대행진 정세 영상, 선제타격 영상과 같은 대중 친화적 영상 홍보물의 생산과 확산은 평통사 내용을 대중 속으로 특히 청년들 속으로 전파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다. 평화 똑똑이 등 청년 SNS 홍보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고 평통사와 연구소 홈페이지, 평화누리 통일누리를 자주평화통일 운동의 이론 실천적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평통사 내용전파와 2040 청장년 회원 확대에 이바지하도록 개편하자.

청년 상근자의 발굴과 육성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평통사 청년 사업을 전국화하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평통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좌우하는 절대적 과제다. 특히 청년 상근자의 이론과 정책 능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꾸준한 지원은 평통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결정적 문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학습을 보장하고 이론, 실천, 홍보, 조직 등 모든 방면에서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자. 새로운 세대가 평통사의 주력으로, 자주평화통일 운동의 새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하자. 모든 지역에서 청년 모임을 구성할 주체를 세우고 평화 똑똑이 지역 편, 평화 아카데미 등 청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년회원 확대에 나서자.

지난 27년간 평통사가 다루는 외교 안보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평통사의 내용이 진보의 미래, 자주평화통일 운동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에 자주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현시기 과제 - 위기관리 각서 개정과 신 작전계획 수립 저지, 전작권 환수, 사드 추가배치/미 MD 참여 저지, 한국의 대만 문제 개입 반대, 한일/한호 군수지원협정 체결 저지, 한미일 동맹/콰드 가입 저지, 핵 군비경쟁 등 - 에 대한 대응력을 한 차원 높이자, 2040 회원이 평통사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청년회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5년 후에는 2040 회원 비중이 전체의 45% 이상이 되는 청년 평통사로 거듭나자! 매년 1천여 명의 회원을 확대하여 5년 뒤에는 대선에서 평통사가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워나가자, 이를 통해 평통사 스스로가 진보의 미래로, 평화로 평화를 준비하는 대안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거듭나자! 

# 평통사 입장과 관점에서 본 20대 대선 민심과 평통사와 진보 진영의 과제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

20대 대선 민심 :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견제,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외면과 무시

20대 대선 민심은 첫째,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선택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는 불공정과 특혜로 상징되는 조국 사태를 맞아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에 갇혀 조국 법무장관을 고집함으로써 윤석열을 대항마로 키우고 결정적으로는 그에게 공정 프레임을 쥐어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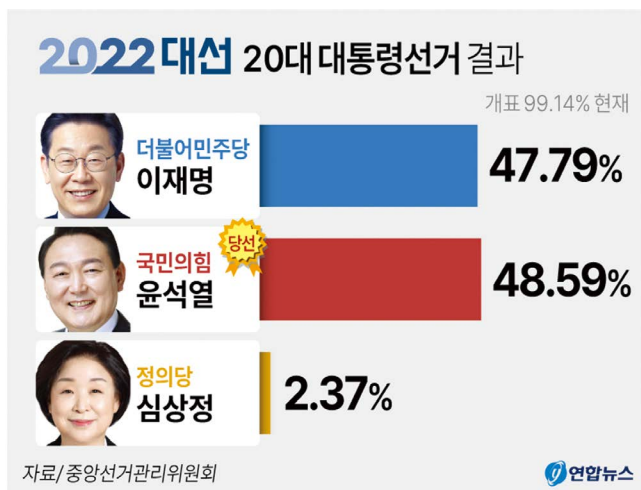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전·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내집 마련의 꿈이 무너진 서민층과 중도층 등 서울 민심은 현 정권에 급속히 등을 돌렸다. 1년 전 2021년 4월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8.3%의 득표율 차이로 압승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도 서울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진 310,766표는 전국적으로 진 247,077표보다 많다. 이렇듯 이재명 후보는 정권심판여론이 우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판에 치고 올라와 민주당 역대 대선 최대 득표수인 16,147,738표를 얻었지만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벽은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둘째, 0.73%에 담긴 대선 민심은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 힘에 대한 견제다. 윤석열 후보는 역대 대선 최소의 득표율 차이(0.73%)로 당선됐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8%~10%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낙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

의 경우 대장동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선관위의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등 표가 떨어질 온갖 요인이 다 등장했는데도 윤석열 후보와의 표 차이가 고작 247,077표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0.73%에 담긴 대선 민심은 성별·세대별 갈라치기, 멸공(?)과 같은 구시대적 이념공세, 무분별한 선제타격과 사드 추

가배치 주장 등에 불안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함부로 폭주할 수 없도록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누구에게도 압승과 완패를 보내지 않은 이번 대선 민심은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선택한 것이다.



김영은 기자 20220310

20대 대선 결과 (사진출처: 연합뉴스)

셋째, 이번 대선 민심은 심상정 후보 등 모든 진보정당 후보를 철저히 무시·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진보당원 수의 절반에 그친 37,366표, 노동당 이백운 후보는 9,176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803,358표를 얻는데 그쳤다.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2.37%는 19대 대선에서의 6.17%(2,017,458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수 양당과 구별되는 선명한 진보,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실패한 것이다.

진보정당 후보의 존재감 상실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측 지지층이 총결집한 선거 구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 대선 후 여론 조사 결과(아시아경제, 2022.3.12.)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17%, 26%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지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진보정치/정당이 보수 양당 후보와 차별성을 갖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진보단일화를 이루고 국민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참신한 새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 진보후보에 대한 외면과 무시는 진보 가치의 포기, 이론·실천적 내용의 부재, 대립과 분열이 낳은 결과

심상정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친 기업 보수 양당 후보와 차별성을 띄웠다. 그러나 1월 17일, 닷새간의 칩거 끝에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보인 그의 첫 행보는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자신이 ‘반기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보수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당 내부에서조차 “선명한 진보 의제가 눈에 띄지 않았다”,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 청년, 여성에서 득표율이 저하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노동중심성이 후퇴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나선 권영길 후보가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남북 상호군축,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행보와 대비될 정도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후보의 불법적 선제타격 주장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조차 명쾌하고 통쾌한 사이다 발언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이는 그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를 뚫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전개할 이론·실천적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김재연 후보, 이백윤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심상정 후보가 민주노총이 어렵사리 마련한 후보 단일화의 계기를 살려 대승적 차원에서 진보 진영의 단결과 대통합을 결단했더라면, 그리하여 노동중심성, 진보성 강화로 보수정당 후보와 차별성을 갖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제시하면서 5~10% 내외의 표를 흡수했었더라면, 존립 위기에 처한 진보정당의 재생의 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캐스팅 보트를 줌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견인해 공동정부를 매개로 연합을 이루는 적극적인 선거전략 구사로 진보정치/정당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진보 대도약의 길을 활짝 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진보정치/정당은 20대 대선을 진보 재생의 계기로 삼아, 기존 진보정당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믿음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진보정치/정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지리멸렬하게 대응함으로써 진보정치/정당은 물론 평통사를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가 활로를 찾기 어려운 존립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 진보진영 재생의 동력과 출발점 : 대중 속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진보진영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를 뚫고 진보의 가치를 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론·실천적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진보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를 깨지 못하는 한, 대중이 진보적 가치와 대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진보의 존립위기 극복과 진보 재생의 동력이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진보진영 위기의 본질이 한미동맹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들보다 우위에 서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중을 설득해나갈 이론·실천적 내용을 갖추지 못한 데에 있다면, 진보진영이 존폐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동력은 민중적·민족적 요구를 반영한 진보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론·실천적 내용을 갖추는데서 찾아야 한다. 이에 1994년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는 동안 자주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대중적 설득력이 검증된 평통사의 이론·실천적 내용은 진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자 진보 재생의 동력이다. 이는 평통사의 이론·실천적 강화와 조직적 토대의 확대는 곧 진보 재생을 위한 생명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의 위기 극복과 재생을 위한 출발점은 대중 속에서 진보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 변혁에서 정당과 선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신중단지 모시듯 하면서 불법으로 점철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나 역대급 미국 퍼주기과 거짓으로 점철된 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서조차 국익을 지키고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갖는 정당/의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을 정도로 우경화된 제도정권을 통해 평통사의 입장과 대안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틈새와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평통사가 진보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보 재생에 기여하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은 철저히 아래로부터,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어야 하며, 정당운동 방식은 적어도 현 시기 평통사 활동의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노태우 정권이 여소야대 정국을 공안정국을 조성해 돌파하려 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가중되는 안보위기와 심화되는 불평등과 차별에서 비롯될 위기를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와 이념공세, 검찰독재를 앞세워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평통사가 진보 운동 재생과 재구축의 동력이 되고 보수 수구세력의 공세로부터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진지가 되어 대중 속에 진보의 가치를 뿌리내릴 수 있게 평통사의 이론·실천적 내용 강화와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것!, 이것이 20대 대선 민심과 정세가 평통사에 제기하는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다. 평통사를 강화하는데 매진하고 또 매진하는 가운데 역량과 조건이 되는 만큼 진보정치/정당이 구사하는 선거전략에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평통사를 키워나가자. 

## 어흥! 평화를 준비하는 한 걸음

김하리 평통사 성공회대 소모임 대표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웃놀이 부스를 진행하고 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 ‘어흥’은 평통사 성공회대 소모임의 이름입니다. 올해가 임인년 호랑이해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흔히 남북한이 이어져 있는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한반도가 نرم한 호랑이의 모습으로 남북이 다시 하나 되어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모습을 꿈꾸며 소모임 이름을 어흥이라고 지었습니다.

어흥은 이번 3월, 성공회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자 두 차례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리 홍보 부스였고, 두 번째는 세미나 개최였습니다. 동아리 홍보 부스에서는 독자적인 어흥 만의 기획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여러 의제를 만나볼 수 있는 웃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웃판을 한반도 모양으로 만든 평화 웃놀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웃을 던지고 오엑스 퀴즈를 풀고 상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구성과 참여도 높은 활동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우리 소모임 어흥을 확실히 알릴 수 있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이제와서 통일?: 우리가 외면해온 통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며 지금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분단의 역사, 한미동맹, 내부균열, 선제 타격, 통일 방안, 총정리의 순서로 진행한 이 세미나 역시 짜임새 있는 준비와 탄탄한 내용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누군가의 당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매일 늦게 들어갈 정도로 바빴습니다. 개강을 한 3월 2일부터 세미나를 한 3월 11일까지 말이죠. 이 날들 동안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면 멋쩍기도 했습니다. 질리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통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록 무리하고 심심하게 방학을 마무리한 제게 이런 생기 가득한 바쁨은 정확히 제가 기다려왔던 것이었으니까요.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머리에 울리는 게 너무나 익숙했던 다른 활동들과는 달랐습니다. 의미까지 있으니, 한 번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지요.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과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늦게까지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잠들면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중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22학번 학생들을 앞에 두고 세미나 발제를 할 때 더욱 더요.

세미나가 끝난 후, 일이 바빠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체력만 된다면 어흥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하루가 이미 얼마나 짝 차 있는지 알기에, 친구의 의지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의지의 출처를 물었고 친구는 최근의 대통령 당선을 보니 더 이런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커져야지!”

누군가는 채식으로, 누군가는 정치로, 또 시민 단체 활동으로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우리의 오늘과 나의 작은 활동이 무엇인가 평화를 준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평통사의 시선을 배우고 함께 평화를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통사 성공회대 모임 어흥도 함께하겠습니다. 

## ♥ 광주, 목포, 나주, 해남 평통사

### 광주, 나주, 목포, 해남 회원 학습



광주, 나주, 목포, 해남에서 매월 2차례씩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모임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고, 또 대선을 앞두고 <선제타격 문제점>, <평통사 입장과 정책>에서 본 대선후보 공약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대선 후보자들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비교하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선제타격의 문제점’의 경우,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비교하면서 선제타격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해 얘길 나눴습니다. 대선 후보 공약의 문제점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과 평통사의 입장을 비교하며, 어느 정당도 제대로 된 정책들을 내오지 못해 투표에 대한 고민들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학습에 참여한 회원들은 ‘우리가 평통사의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알려내야겠다’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 한미연합연습 반대 평화행동에 참여해주세요!

광주, 나주, 목포, 해남에서 3월 말~4월 초부터 한미연합연습 반대 평화행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북 선제타격/사드추가배치 반대 피켓팅



광주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2월 25일(금)부터 3월 8일(화)까지 대북선제 타격과 사드 추가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팅을 광주 총창로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자극적이고 위험한 발언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쟁만은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번 평화행동에는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10명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 노래로 시작하는 회원모임



박연정 운영위원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원모임의 시작을 노래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창복 운영위원이 악보도 준비하고 기타 반주도 합니다. 회원들은 모임을 시작하기 전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추억에 젖기도 하고, 가사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멜로디에 마음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을 하나로 묶고 마음을 열어주는 노래를 부르는 5분 여의 시간, 참 마법 같습니다.

## 사드 추가배치 반대 기자회견 및 릴레이 평화행동



윤석열 후보의 사드추가배치 공약에 대응하여 2월 7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반대" 릴레이 평화행동을 시작해 3월 5일(토)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논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서명운동과 집중평화행동을 2월 24일(목)과 3월 3일(목),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논산 평통사 회원들과 논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평화행동 기간 동안 사드반대 평화행동에 온 정성과 힘을 모았습니다.

## 사드기지 육상통행로 저지 평화행동



3월 17일(목), 소성리 사드공사 저지투쟁에 이도구 대표, 윤여진 운영위원, 변혜숙 사무국장이 참가했습니다. 이도구 대표는 윤석열 당선자의 사드 추가배치 망언을 규탄하며, 소성리 주민들에게 논산에서도 사드반대 평화행동을 가열차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청소년이 잇자, 남북철도!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3월 26일(토), 양지농촌유학센터에서 <청소년이 잇자, 남북철도> 논산 청소년 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남북철도잇기 행진에 직접 참여했던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 남북철도대행진의 의미를 알아 보았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즐거워하며 임진각에도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 총회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1차 총회를 위한 준비가 2월 운영위원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논산평통사 창립의 설렘과 다짐을 기억하며 지난 한해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변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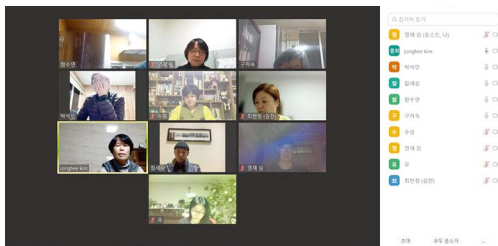
## ♥ 대구평통사

### 사드기지 육상통행로 저지 평화행동



3월 17일(목),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사드기지 육상통행로 저지행동은 90회차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매주 2회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기지 육상통행로 확보 시도를 이어왔고, 2월부터는 주 2회에서 3회로 한 차례 늘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사드기지 육상통행로 확보는 미국의 불법적인 한국배치 사드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법사드를 완전 배치, 영구 배치할 수 있는 결정적 사안입니다. 그만큼 성주, 김천주민들과 함께하는 육상통행로 저지행동은 힘들고 지난한 투쟁이 되겠지만 사드가 철거되는 그 순간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회원 학습



대구 평통사 회원공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대구 평통사는 국방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약 2개월에 걸친 국방예산 공부는 한반도 평화와 지역 사안이기도 한 사드철거 투쟁에 있어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발판으로 더욱 힘찬 현장 실천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김영재]

## ♥ 대전충청모임

### 부여모임 사드반대 창의적 실천 전개

부여모임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2월 1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 연날리기, 풍물놀이를 하면서 벗짚알(일명=공룡알)에 사드 반대를 형상화하는 창의적 방식으로 윤석열의 사드 추가 배치 대응 실천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미 지역에 많은 사드 반대 현수막이 걸린 상황에서 의미와 흥겨운 재미를 곁들인 실천을 전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대전, 천안, 청주에서 사드추가 배치, 선제타격 반대 일인시위 전개



윤석열의 사드 추가 배치와 대북 선제타격 주장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대전(권현영, 정승길, 심정보, 임병언, 강정혜, 김미숙, 조현중, 이영옥, 추도엽) 천안(심우근, 이득우, 송광성, 한상열, 황의대) 청주(이재규, 김창규)에서 전개하였습니다.

다. 청주 대응을 주도한 이재규님이 회원가입했습니다. 천안에서는 평통사 단독으로 처음 일인시위를 전개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역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 에 대한 반응이 평소 보다 더 강했습니다. 또한 수고한 다며 빵을 사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 대전회원들, 소성리 평화행동 참가

2월 24일(목), 추도엽, 권현영 회원이 소성리 평화행동에 참가하여 주민과 연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경찰이 주2회에서 주3회로 늘려 들어오면서 더욱 공세적으로 주민과 지킴이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하지만 평통사는 사드가 뺏혀나갈 때까지 주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유영재]

## 회원 특강 <기후위기와 핵>



부산평통사는 다섯 주가 있는 달 마지막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강사로 나서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지만 1월 30일에 기후위기비상경남행동에 나서고 있는 박종권 회원이 강의를 맡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인 정수희 회원이 사회를 맡았는데, 기후위기를 틈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을 확대하려는 등 핵산업 마피아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사실도 짚어주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핵무기의 위험과 사용이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이날 특강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특강에는 23명의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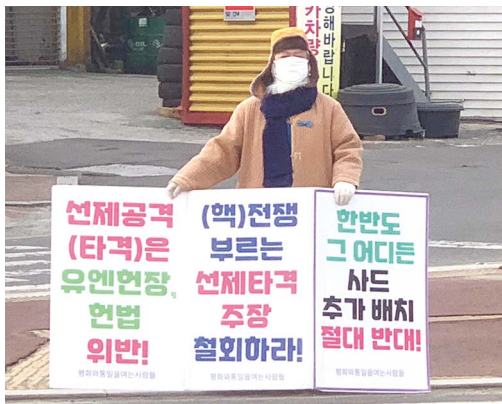
## 청년모임

청년들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는 학습모임을, 셋째주 월요일은 전체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철학학습을 마무리했습니다. 2월 21일에는 비대면으로 부산&마창진 청년전체모임을 진행했습니다. 7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제타격 문제점' 유튜브 영상을 다같이 시청하고, 평택라이브도 소개하고 '우리가 직접 준비하고 진행해보자'는 결의도 모았습니다. 3월에는 근현대사 학습을 시작하고, 21일에는 전체모임이 있습니다.

## 평화발자국 해설사 모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평화해설사 모임을 3월 2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화발자국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자료집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평화역사를 담은 이 자료집은 청년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평화발자국도 다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 대북선제타격(공격)과 사드 추가배치 반대 1인시위



부산평통사는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부산, 마산, 창원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선토론 과정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보호를 위해 사드를 추가배치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의 걱정과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부산평통사 회원들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유엔헌장과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면 지하상가와 마산 팔용터널 앞, 창원 시내에서 2인1조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 ♥ 서울평통사

### 온라인평화사랑방에 함께 해주세요



3월 8일(화), 온라인평화사랑방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은 국방예산 총론 중에서 '북한 위협 부풀리기'와 '주변국 위협론'을 빌미로 국방예산을 올리는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질문으로는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북이 핵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이 남을 향해 핵을 쏘는 상황은 미국의 보복 핵공격을 불러와 그야말로 민족의 공멸이고, 북이 이렇게 자신도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북한 전문 연구기관이 밝혔듯 북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 개발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평화사랑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울평통사 번개모임



몇몇 회원이 3월 5일(토), 교동도에 다녀왔습니다. 교동도에 작은 집을 갖고 있는 김미령 회원의 안내로 집도 둘러보고 멀리 북한 땅이 보이는 망향대에도 들러서 분단된 현실을 다시금 느껴보았습니다.

### 노동분회 번개 모임



12일(토)에는 편의점과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느라 노동분회 모임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한 박미숙 회원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박미숙 회원은 여전히 쾌활하고 즐겁게 생업을 꾸리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황윤미

## ♥ 김제평통사(준)

### 회원 공부모임



대선정국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발언으로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제평통사 회원들은 3월 5일(토)과 12일(토) 3주에 걸쳐 익산회원들과 익산영천교회에 모여 선제타격의 불법성과 사드배치의 부당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한미연합전쟁연습 위헌확인소송 공동 청구인 모집도 하였습니다.

|황혜정

## ♥ 익산평통사

### 평화사랑방



3월 25일(금), 익산 평화사랑방에서는 "선제타격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문영만 공동대표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문대표가 발제로 강의하였고, 청년들이 만든 영상도 시청하고, 유정섭 사무처장의 보충설명과 진행으로 2부를 진행했습니다. 온·오프 병행을 위한 준비에서부터 회원조직과 기획까지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진 평화사랑방을 무사히 마치고, 뒤풀이까지 유익하게 즐겼습니다. 오프라인 6명, 온라인 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다소 아쉬운 인원이지만 당초 목표했던 10명을 넘어 11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평화사랑방을 통해서 회원들의 평통사 중심성과 정체성을 높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군산 미군기지 앞 월례집회



2월 16일(수)에는 박영희 운영위원이 군산 미군기지 앞 월례집회 후에, 남수라 마을에서 새만금신공항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6일(토)에는 군산 하제마을 대보름 행사에 김대송 공동대표와 박영희 운영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미군기지 확장반대 고사도 진행했습니다.

### 사드기지 육상통행로 저지 평화행동



2월 22일(화), 소성리 투쟁 현장에 김대송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영희, 조원일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새벽부터 소성리 할매들이 굶은 허리로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모습이 유난히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법사드 공사장비, 자재반입 횡수를 주2회(화/목)에서 주3회(화/수/목)로 늘린다고 합니다. 소성리 투쟁에 함께 할 익산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 회원 워크숍

2월 12일(토)과 19일(토), 양일에 걸쳐 전국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12일(토)에는 선제타격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영대 공동대표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19일(토)에는 사드 추가배치 주장의 문제점, 오후에는 대선 정당별 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익산과 김제는 익산 영천교회에 모여 함께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등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 ♥생일을 축하합니다!

2월: 강익현 박창신 임탁균 장종수 채운석 최미애 최민옥  
3월: 박은경 심경희 오기주 이정애 장형규 전호정

[조원일]

## ♥ 인천평통사

### 주경아독, 우보천리~~ 온라인평화사랑방



3월에는 '20대 대선 결과와 의미'를 짚어보고 '2022년 평통사 활동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 대한 견해를 0.73%표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보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과 존재감 상실은 진보의 위기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회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 사드 추가배치, 대북선제타격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외교안보 영역에서 이론과 실천을 선도해온 평통사의 역할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앞으로 학습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2040세대 청년회원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 ▶◀[추모] 이옥재 회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옥재 회원이 3월 6일 루게릭투병 중 코로나 확진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인천평통사 모범 회원으로 실천에 앞장서고 작년 투병 중에도 남북

철도잇기 행진에 참여할 정도로 열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평통사 청년활동을 많이 격려해 주셨던 분입니다. 김일희, 김성태 대표와 사무국에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상의평화모임



2월 8일, 3월 20일, 지상의평화모임을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학용 신입회원이 모임에 함께하여 활력이 되었습니다. 생활나눔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년 활동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작년에 호평을 받은 평화순례를 잘 살려 올해는 4차례를 평화발자국과 결합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상의평화모임은 인천평통사 회원 중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 사무국 010-5590-9134)

### ♥ 신입회원님 환영합니다~~^^

유종현 정찬식 한혜경 유복희 박병화 양미라 전혜미 박정애 권혜연

### [알림] 인천평통사 18차 정기총회

- 일시 : 2022년 4월 16일(토) 오후 3시
- 장소 : 비대면(Zoom) + 대면(사무실)

[김강연

## ♥ 성남용인평통사(준)

### 운영위원회 및 회원 공부모임

2월 10일(목), 정기운영위원회를 갖고 회무처리와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2월 24일(목) 회원공부모임을 줌으로 진행하였는데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제타격론'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3월 회원공부(Zoom)는 3월 31일 오후 8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회원소식

유규성 목사가 3월 10일 기독교장로회 경기남도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덕석



## 평통사 <사무실 마련 씨앗기금>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3년 후에는 평통사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평통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평통사와 서울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가 공동으로 사무실(60평 규모)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평통사는 정부/기업의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100% 회원들의 회비로만 활동해 왔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자주, 평화, 통일의 한 길을 열어올 수 있었습니다.

3년 후면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사무실 임대료 비용 등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평통사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씨앗 기금>을 조성하여 평통사 독자적인 공간 마련 등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자주, 평화, 통일운동의 산실! 평통사 활동의 근거지!

사무실 마련 <씨앗기금> 조성에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씨앗기금 문의] 사무처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 [씨앗기금 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씨앗기금 [1월]

강수혜 구자숙 군산평통사 김강연유정섭 김상덕 박영희 박하영 오미정 오혜란 유한경 이미경 유은정 (이상엽) 이석문 이우곤 장남희 정수경 정용진 황윤미

#### \*씨앗기금 [2월]

강수혜 군산평통사 김강연유정섭 김상덕 김영숙 박영희 박하영 박하영 부천평통사 오미정 오혜란 원응호 유한경 이상엽 정수경 정용진 황 완 황윤미



# 회비와 후원금 (2022.1-2)

## 중앙평통사

[1월]

### [임원 및 중앙회비]

강대성 강정구 고영대 고익근 김광진 김귀옥 김동완 김명래 김삼열 김용순 김점수 김형배 김호영 김홍수 노혜정 노혜정 배종열 배현철 변연식 변희영 안진걸 유영섭 윤미연 이 규 이성호 이영민 이옥숙 이일영 임종철 장경욱 정경훈 조상수 조은숙 홍영진 황병태 황호영

[정기후원금] 김광열 들꽃향린교회 향린교회

[부정기후원금] 박기학 장남희 김성열

[제주지역위원회비] 강호진 김동원 김성규 김중환 박한백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강원지역위원회비]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2월]

### [임원 및 중앙회비]

강대성 강정구 고영대 고익근 권정호 김광진 김귀옥 김동완 김명래 김삼열 김용순 김점수 김정욱 김호영 김홍수 문규현 배종열 배현철 변연식 변희영 안진걸 유영섭 윤미연 이 규 이성호 이옥숙 이일영 임종철 장경욱 정경훈 조상수 조은숙 홍영진 황병태

[정기후원금] 김광열 들꽃향린교회 향린교회

[부정기후원금] 김성열 이일영

[제주지역위원회비] 강호진 김동원 김성규 박한백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강원지역위원회비]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 광주평통사

[1~2월]

강경식 강세홍 강은미 강정원 강지연 강춘원 고광식 고남송 고영민 고재한 공수현 구가연 기원주 김가영 김규탁 김광중 김기만 김기현 김덕용 김덕우 김동건 김동우 김동열 김동효 김명선 김미숙 김미진 김미형 김민선 김범중 김병일 김삼철 김서인 김선미 김선재 김성룡 김세화 김수영 김순홍 김승식 김승원 김영배 김영석 김예지 김옥근 김옥희 김용근 김용목 김용태 김용호 김 윤 김유빈 김유정 김윤아 김은규 김은정 김은지 김의영 김재중 김건경 김 정 김정섭 김정은 김중석 김종필 김진수 김진순 김태만 김혁중 김현영 김현주 김현진 김현태 이창희 김혜련 김홍길 김화순 김효경 김희용 나윤상 남상진 노진영 류기선 류상선 류승환 명경관 무등교회 문은미 박광희 박기웅 박갑원 박다현 박상욱 박상은 박상진 박상희 박석우 박석진 박선미 박성수 박세중 박수본 박수희 박영태 박우열 박윤수 박민진 박일남 박재영 박정화 박종명 박종렬 박창준 박태순 박현재 박형아 박홍산 박홍환 배민혁 배이영 배진하 백규원 백지은 변하연 서경훈 서기용 서부원 서수연 서연우 서종환 서진영 서현미 성창우 손민섭 손수영 송규원 송기철 송문식 송미숙 송성주 송순교 송진환 신경구 신경희 신영훈 신재용 심창남 안 민 안 석 안영숙 안효철 양다희 양 동 양민철 양성수 양승집 양연우 양혜은 양혜주 오공희 오봉록 오승경 오영현 오정아 오창규 오승관 위유민 위한복 유시훈 유 실 유옥주 유영열 유종천 윤봉란 윤상호 윤영덕 윤영식 윤유식 윤정원 윤종범 윤 준 윤지숙 윤정자 윤태원 윤현식 윤형현 이건규 이경진 이경희 이계양 이광철 이교창 이귀임 이금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다혜 이매실 이미옥 이병섭 이병일 이상현 이석주 이성계 이수경 이승남 이승호 이영선 이영운 이영주 이영형 이윤빈 이윤주 이우원 이원석 이윤정 이은수 이정욱 이지하 이지훈 이진덕 이철우 이태욱 이하린 이현수 이훈규 임경숙 임광석 임대영 임랑목 임미이 임성수 임세미 임종모 장광철 장덕자 장동식 장래만 장유리 장하동 전경일 전 정 전주연 전택상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동석 정복록 정민아 정보형 정성규 정성호 정성홍 정세만 정순임 정시영 정영태 정유리 정윤영 정종득 정찬화 정찬호 정태환 정현우 조선호 조성식 조수빈 조연경 조영모 조용근 조용석 조정하 조효숙 주경미 주태훈 주하주 지영도 지희준 진종화 최경미 최기호 최동수 최동환 최봉진 최선동 최수신 최숙인 최영돈 최영호 최윤규 최정현 최치현 최희연 탁우송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표경식 표영민 하정길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상대 홍영애 홍요한 황권택 황순영 황장권

## 군산평통사

[1월]

강임준 강임숙 고광석 고대영 고동식 고두영 고석순 권태균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기철 김동구 김봉옥 김상덕 김상영 김성근 김성훈 김성수 김수진 김오수 김유진 김 진 김진환 김태철(박현진) 김현균 나기학 나신환 남대진 문경희 문규옥 문성국 문장주(임미숙) 문순임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순옥 박옥현 박운옥 배형원 서대석 서동완(한성자) 선진숙 송래은 송상규 신동수 신수철 양기만 양은희 오금수 오선환 오주병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윤요섭 이계택 이명렬 이명로 이봉호 박원규(이선희) 이애란 이옥선 이재호 이종인 이지운 이천오 이진우 이현주 임은숙 이현철 이희정 임은혜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장재순 전희남 정다영 정 민 정성빈 정옥진 정우영 정지숙 조경수 조규춘 조수현 조영환 조용주 조인호 조판철 진인하 채영호 최강문 최소영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정숙 현기석 황 진 김연태

[2월]

강임준 강임숙 고광석 고대영 고동식 고두영 고석순 권태균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기철 김동구 김봉옥 김상덕 김상영 김성근 김성훈 김성수 김수진 김오수 김유진 김 진 김진환 김태철(박현진) 김현정 김형균 나기학 나신환 남대진 문경희 문규옥 문성국 문장주(임미숙) 문순임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순옥 박옥현 박운옥 배형원 서대석 서동완(한성자) 선진숙 송래은 송상규 신동수 신수철 양기만 양은희 오금수 오선환 오주병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윤요섭 이계택 이명렬 이명로 이봉호 박원규(이선희) 이애란 이옥선 이재호 이종인 이지운 이천오 이진우 이현주 임은숙 이현철 이희정 임은혜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장재순 전희남 정다영 정 민 정성빈 정옥진 정우영 정지숙 조경수 조규춘 조수현 조영환 조용주 조인호 조판철 진인하 채영호 최강문 최소영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정숙 현기석 황 진 김연태

## 나주평통사

[1~2월]

강현옥 김경호 김광덕 김남철 김명규 김명수 김병균 김상호 김선태 김성보 김영민 김요섭 김윤준 김재영 김종영 김현영 노봉주 노홍섭 마대중 박선재 박용래 박정연 박철수 박철순 박홍채 백종필 선종필 소 영 신수산 신한식 안보현 안희만 양이화 양종요 윤용호 윤재삼 이동막 이 연 이용범 이재창 이재휘 이정균 이정훈 이현영 장영재 장광석 정대중 정만식 정소영 정윤자 정희만 조기태 조성화 최기춘 최진연 최현선 홍기숙 홍양현 홍인희

## 논산평통사

[1월]

강기현 광종섭 권선휘 김가방 김광영 김규태(대전) 김동석 김상중 김선덕 김선아 김종욱 김주하 김하나 김홍재 남기세 류제용 문수민 박동규 박민수 박성화 박성화 박연정 박종식 박희중 방정호 배용하 배지현 배형택 변혜숙 서재식 송동희 심계영 심계영 양성화 오용석 윤나현 윤여진 윤여홍 이규철 이도규 이미옥 이미옥 이승환 이애지 이애지 이예진 이요한 이윤준 이우근 이윤미 이창복 이철호 이택현 이택현 임의수 장복용 전병진 정내순 정명규 정은선 조윤겸 차경선 최영규 최영규 최영민

[2월]

강기현 강요민 광종섭 권선휘 김가방 김광영 김규태(대전) 김동석 김상중 김선덕 김선아 김용준 김종욱 김주하 김하나 김홍재 남기세 류제용 문양로 박동규 박민수 박성화 박연정 박종식 박희중 방정호 배지현 배형택 송동희 송민원 양성화 오용석 윤나현 윤여진 윤여홍 이규철 이도규 이미옥 이수진 이승환 이애지 이예진 이요한 이윤준 이우근 이윤미 이창복 이철호 이택현 이택현 임의수 장복용 전병진 정내순 정명규 정은선 조윤겸 차경선 최영규 최영민 최호길

## 대구평통사

### [1월]

강석주 강현욱 고경수 고윤희 고희림 박영은 구자숙 권기찬 권순덕 권영희 권오혁 권재호 금창호 김경화 김기욱 김대성 김대성 김대현 김덕기 김동현 김명환 김미란 김미정 김병길 김새롬 김성국 김수경 김영숙 김영숙2 김영운 김영재 김예숙 김옥희 김용생 김은주 김재권 김정미 김정석 김정수 김정철 김종희 김주철 김지남 김지섭 김찬수 김재현 김관갑 김한택 김학배 김호훈 나미숙 남미정 노영욱 류재복 류춘우 류한정 문혜경 민현주 박무식 박민호 박배일 박병주 박석민 박성민 박소영 박순중 박영아 박영희 박용재 박재근 박재범 박종규 박주현 박찬문 박철주 박태정 박태희 박형선 배소라 배용한 배인연 배찬호 백권기 설동현 손만철 손현목 송정희 신복실 신순임 신영도 신효철 안주연 안현수 양정희 오덕훈 오신택 오창섭 오혜란 우정순 유선철 유은정 유지수 유창열 윤미지 윤화임 은영지 이근우 이기락 이기자 이나은 이동수 이동욱 이미경 이병수 이병현 이상규 이상술 이석문 이석주 이성로 이성희 이영훈 이용우 이우원 이은수 이재호 이정연 이종균 이종훈 이종희 이종식 이진련 이창 이창주 이천우 이태광 이해선 이희일 임정금 장미숙 장성태 장세길 장재호 장재호2 장정자 장현우 전경삼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영 정수태 정용섭 정종택 조규천 조석옥 조선아 조영준 조용식 조유련 조은학 조현정 주경봉 차상혁 차은남 천영희 최봉태 최충현 최춘식 최현정 하재철 한철희 함수연 허정호 허래남 황병은 황지영

### [2월]

강석주 강현욱 고경수 고윤희 고희림 박영은 구자숙 권기찬 권순덕 권영희 권오혁 권재호 금창호 김경화 김기욱 김대성 김대성 김대현 김덕기 김동현 김명환 김미란 김미정 김새롬 김성국 김수경 김승무 김영숙 김영숙2 김영운 김영재 김예숙 김옥희 김용생 김은주 김재권 김정미 김정석 김정수 김정철 김종희 김주철 김지남 김지섭 김찬수 김재현 김관갑 김한택 김학배 김호훈 나미숙 남미정 노영욱 류재복 류춘우 류한정 문혜경 민현주 박무식 박민호 박배일 박병주 박석민 박성민 박소영 박순중 박영아 박영희 박용재 박재근 박재범 박종규 박주현 박찬문 박철주 박태정 박태희 박형선 배소라 배용한 배인연 배찬호 백권기 설동현 손만철 손현목 송정희 신복실 신순임 신영도 신효철 안주연 안현수 양정희 오덕훈 오신택 오창섭 오혜란 우정순 유선철 유은정 유지수 유창열 윤미지 윤화임 은영지 이근우 이기락 이기자 이나은 이동수 이동욱 이미경 이병수 이병현 이상규 이상술 이석문 이석주 이성로 이성희 이영훈 이용우 이우원 이은수 이재호 이정연 이종균 이종훈 이종희 이종식 이진련 이창 이창주 이천우 이태광 이해선 이희일 임정금 장성태 장세길 장재호 장재호2 장정자 장현우 전경삼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영 정수태 정용섭 정종택 조규천 조석옥 조선아 조영준 조용식 조유련 조은학 조현정 주경봉 차상혁 차은남 천영희 최봉태 최충현 최춘식 최현정 하재철 한철희 함수연 허정호 허래남 황병은 황지영

## 목포평통사

### [1~2월]

강성휘 강 신 강원구 강현석 고정석 권혜경 김경미 김관일 김금숙 김기중 김기천 김남근 김동규 김무영 김석원 김성식 김애리 김영균 김영제 김영호 김예영 김용철 김중수 김중석 김지희 김창현 김철홍 김현아 김희삼 류경수 마삼진 문보현 문성훈 문매준 문희정 박기철 정지범 박 웅 박윤학 박종찬 박진경 박충성 박한글 백동규 서만철 서병수 서정임 손낙순 손민원 송철호 신재범 신환중 안광미 안재성 양현주 여인두 엄경숙 정미자 오승주 유지용 유현영 유성현 윤소하 이경훈 이구인 이보라미 이윤이 이종환 이지용 이철배 이미정 이현숙 임동웅 임원택 장문규 장미경 장세현 전 국 정석기 정성우 정영록 조창익 윤영생 정우담 정찬길 조병연 조상현 조영규 최경민 최경식 최기중 최성숙 최은기 최진호 최 훈 한강희 한미경 한수영 황현수

## 보령평통사

### [1월]

고미숙 권기석 권승현 권진복 권창주 권태연 김기중 김민구 김봉희 김상욱 김성환 김양자 김영석 김은수 김정주 김충성 김지는 김현영 남미자 류남신 문춘환 박미라 박종진 백은영 상형규 서순희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오미경 우장식 유성준 윤동주 이덕표 이범석 이상규 이선숙 이영준 이용우 이재문 이정근 이정학 이종철 이창노 이춘성 이학원 임성희 임수영 정정희 최병성 최상기 추동신 한광수 한선영 홍순오 황태연

## [2월]

고미숙 권기석 권승현 권진복 권창주 권태연 김기중 김민구 김봉희 김상욱 김성환 김양자 김영석 김은수 김정주 김충성 김현영 김호신 남미자 류남신 문춘환 박미라 박종진 백은영 상형규 서순희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오미경 우장식 유성준 윤동주 이덕표 이범석 이상규 이선숙 이영준 이용우 이재문 이정근 이정학 이종철 이창노 이춘성 이학원 임성희 임수영 정정희 최병성 최상기 추동신 한광수 한선영 홍순오 황태연

## 부산평통사

### [1월]

강동현 강문수 강연석 강용준 강정아 강한들 경노현 고명석 고송하 고재연 공명탁 공소연 광광덕 광병철 광상진 권수진 권승완 권정미 권정아 권창훈 권창훈 권혁건 김강임 김건우 김경태 김광수 김광주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남희 김동휘 김명환 김미경 김미라 김병덕 김봉준 김봉현 김봉현 김상근 김상기 김성환 김서희 김성수 김수한 김순희 김여원 김여원 김영미 김영학 김영진 김영수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교사) 김영훈 김요아침 김용만 김용한 김 욱 김유중 김은영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인수 김재연 김재욱 김점선 김점선 김점숙 김종국 김종이 김주희 김지영 김태정 김태훈 김학남 김해영 김해영 김현호 김혜경 김혜경 남송우 남원철 남정희 남춘희 남태욱 남태욱 남태호 노영자 노영자 노정현 도라지 도용희 문배수 문상환 문은경 박광선/계숙경 박노숙 박다운 박미영 박봉규 박석분 박석분 박석민 박성란 박성란 박성호 박수경 박수정 박승일 박승찬 박승호 박영돈 박이경 박재성 박정임 박정임 박정하 박정환 박정희 박종권 박종진 박진수 박철현 변영철 변영철 변재욱 변종철 서금성 서유연 서종범 서진화 석혜진(배연암) 성기석 성득찬 성은화 손경락 손기중 손양호 송병근 송정아 신경희 신민재 신민재 신석규 신수정 신승태 신연아 신차범 신태일 신혜숙 심창진 안승엽 양윤정 양은희 양재순 양한웅 양현호 양하니 엄계희 엄계희 엄귀현 엄병중 엄성진 엄상진 여승철 여승철 여영국 여종숙 여종숙 오금주 오문범 오종석 우수경 원형은 유수진 유재규 유홍희 윤경환 윤영숙 윤준근 윤총렬 윤혜정 윤 현 이강식 이경수 이경숙 이기성 이덕순 이동현 이명희 이명희 이미나 이상남 이상범 이상범 이상익 이상진 이상진 이상창 이상철 이상훈 이상훈 이순일 이영화 이영화 이우영 이우섭 이윤서 이의용 이의직 이재석 이재인 이재인 이점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식 이종우 이진호 이창환 이태재 이학진 이해선 이화진 임상민 임상민 임성이 장원자 장유량 장호봉 전광일 전나미 정성애 정성애 정수희 정쌍은 정영선 정영은 정원욱 정임록 조광호 조 명 조병준 조형래 좌은아 진병만 진승희 차성호 차성호 차정인 채희란 천은미 최무파 최병학 최영준 최종태 최 진 최필숙 탁도균 하도균 하지림 하해숙 한기순 한석문 한석문 한선아 한애자 한지연 한지연 허남철 허재복 홍술민 황구화 황도용 황보문정 황성운 황용재 황원덕 황재문 황희경

## [2월]

강동현 강문수 강연석 강용준 강정아 강한들 경노현 고명석 고송하 고재연 공명탁 공소연 광광덕 광병철 광상진 권수진 권수진 권승완 권정미 권정아 권창훈 권창훈 권혁건 김강임 김건우 김경태 김경태 김광수 김광주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남희 김동휘 김명환 김미경 김미라 김병덕 김봉준 김봉현 김상근 김상기 김성환 김서희 김성수 김수한 김순희 김여원 김여원 김언이 김영학 김영미 김영수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교사) 김영훈 김요아침 김용만 김 욱 김유중 김은이 김은영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인수 김재연 김재욱 김점선 김점선 김점숙 김종국 김종이 김주희 김지영 김태정 김태훈 김학남 김해영 김해영 김현수 현 호 김혜경 남송우 남원철 남정희 남춘희 남태욱 남태욱 남태호 노영자 노영자 노정현 도라지 도용희 문배수 문배수 문상환 문은경 박노숙 박다운 박미영 박봉규 박석분 박석분 박석민 박성란 박성란 박성호 박수경 박수정 박승일 박승찬 박승호 박영돈 박이경 박재성 박정임 박정하 박정환 박정희 박종권 박종진 박진수 박철현 변영철 변재욱 변종철 서금성 서유연 서종범 서진화 석혜진(배연암) 성기석 성득찬 성은화 손경락 손기중 손병근 손양호 송정아 신경희 신민재 신민재 신석규 신수정 신승태 신연아 신차범 신태일 신혜숙 심창진 안승엽 양윤정 양은희 양재순 양한웅 양현호 양하니 엄계희 엄귀현 엄병중 엄성진 여승철 여승철 여영국 여종숙 여종숙 오금주 오문범 오종석 우수경 원형은 유수진 유재규 유홍희 윤경환 윤영숙 윤준근 윤총렬 윤혜정 윤 현 윤 현 이강식 이경수 이기성 이덕순 이동현 이명희 이명희 이미나 이상남 이상범 이상범 이상익 이상진 이상진 이상창 이상철 이상훈 이상훈 이순일 이영화 이영화 이우영 이우섭 이윤서 이의용 이의직 이재석 이재인 이재인 이점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식 이종우 이진호 이창환 이태재 이학진 이해선 이화진 임상민 임상민 임성이 장원자 장유량 장호봉 전광일 전나미 정성애 정성애 정수희 정쌍은 정영선 정영은 정원욱 정임록 조광호 조 명 조병준 조형래 좌은아 진병만 진승희 차성호 차성호 차정인 채희란 천은미 최무파 최병학 최영준 최종태 최 진 최필숙 탁도균 하도균 하지림 하해숙 한기순 한석문 한석문 한선아 한애자 한지연 한지연 허남철 허재복 홍술민 황구화 황도용 황보문정 황성운 황용재 황원덕 황재문 황희경

이정숙 이정식 이종우 이진호 이창환 이태재 이학진 이혜선 이화진 임상민 임상민  
임성이 장석재 장원자 장유달 장호봉 전광일 전나미 정성애 정성애 정수희 정쌍은  
정영선 정영은 정원욱 정임복 조광호 조영 조병준 조형래 좌은아 진병찬 진승희  
차성호 차성호 차정민 채희원 천은미 최무덕 최병학 최영준 최종재 최 진 최필숙  
탁도균 하도균 하지림 하해숙 한석문 한석문 한사아 한예자 한지연 허남돌 허재봉  
허재봉 홍솔민 황구화 황도용 황도용 황보문정 황성순 황용재 황원덕 황재문  
황철환 황희경

#### 부천평통사

##### [1-2월]

강성진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권향란 권혁만 권희진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우 김미영 김석환 김성근 김성애 김성용 김성훈 김 솔 김숙희 김숙희2 김용란  
김용상 김재훈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경 김현주 김형미 김혜영 노형욱 문종열  
민경선 박경원 박덕천 박성진 박숙경 박순광 배영미 서소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소미영 손두수 손종욱 송기부 신정길 심영섭 오시현 오용균 유승우 윤용한 윤종한  
이도영 이병훈 이선주 이송자 이영아 이규경 이은영 이종주 이준훈 이진희 이현주  
이혜연 임숙영 임현순 장인옥 장해영 정근수 정미모 정선화 정승욱 정용진 정윤희  
정현희 정희복 조기대 조숙희 주명숙 주정숙 지상철 지태봉 차성호 천수향 최성희  
최정규 최희준 허민영 현지현 홍병현 홍성진 황영선 황영희 황의순 황종현 황용순

#### 서울평통사

##### [1월]

강대곤 강대준 강보향 강수혜 강양원 강영록 강우균 강윤미 강주산(2개월) 강하금  
강효석 고경심 고명우 고연주 공동길 꼭노현 권옥현 구국경 권순걸 권순형 권영무  
권 옥 권자숙 권혁문 권혜인 김건태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규태(2개월)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대성 김동훈 김명선 김명일 김명화 김미령 김미영 김상균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선희 김수정 김수찬 김안순 김영곤 김영리 김영모 김영순  
김영애(2개월) 김영은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2개월) 김인아 김재훈 김정미 김정미 김정원 김정원 김종일 김종일 김종한  
김지수 김 진 김진진 김준래 김준래 김하리 김한성 김해인 김향자 김현애 김현진 김화순 김효식 김후중 김희국 김희현 나현대 나혜영 남택우 류은숙  
림구호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민성호 민 영 민영미 박경수 박경혜 박미성 박미성  
박민서 박봉희 박상호 박소민 박승한 박연미 박우성 박은봉 박종양 박종인 박주연  
박진욱 박진희 박하순 박하영 박한창 박해철 박혜진(2개월)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방애순 배우주 배춘실 변연희 서보혁 서영미 서예원 서유미 서인규 서창석 서창호  
신소진 신순단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송금심 송민영 순상환 신근아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신필중 심상준 안병호 안희옥 양계택 양금순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양희운 어익선 여혜숙 연선민 염율희(2개월) 오근갑 오기성 오낙영 오미정 오 선  
오정규 오지연 오태경 오혜경 오미정(2개월) 우성란 원웅호 유나리 유숙경 유영철  
유정애 유종석 유형걸 유근섭 유동현 윤사중 윤성림 윤수애 윤영수 윤영일 윤은섭  
윤호상(2개월) 이강산 이경목 이경아 이경옥 이경은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기도 이기영 이기자 이두우 이봉국 이광순 이삼미 이상재 이상훈 이선욱 이선재  
이수철 이순혁 이송무 이아름 이영숙 이영주 이 윤 이윤석 이은성 이재갑 이재필  
이정숙 이정숙 이종수 이주영 이주희 이형수 이수정 이혜진 박승렬 이화연 이화정  
임동원 임미경 임보라 임수아 임수아 임인식 임창혁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경도  
장기준 장남희 전보현 전영란 정광진 정김경숙 정동기 정상현 정성일 정성채  
정소연 정수용 정연선 정영훈(2개월) 정원진 정준영 정호천 조계성 조순금 조영희  
조우영 조은화 조화순 주혜원 진유식 차운석 차정운 채운석 최대욱 최명호 최문숙  
최정원 최삼술 최석희 최성민 최아람 최영환 최 원 최윤지 최원태 최종미 최향숙  
최현민 한문덕 한상기 한상국 한석희 한종현 한현실 한호석 허명석 현동식 형복순  
홍희희 홍지은 홍창희(김명화) 홍희덕 황금석 황순하 황 완 황윤미 황철우

##### [2월]

강대곤 강대준 강수혜 강양원 강영록 강우균 강윤미 강주산 강하금 강효석 고경심  
고명우 고연주 공동길 꼭노현 권옥현 권국경 권순걸 권순형 권영무 권 옥 권자숙  
권혁문 권혜인 김건태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규태 김균열 김기수 김대성  
김동훈 김명선 김명일 김명화 김미령 김상균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선희  
김수찬 김수찬 김안순 김영리 김영모 김영순 김영애 김영은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은미 김은미 김은미 김인아 김재훈 김정미 김정미

김정원 김정자 김정현 김종일 김종일 김종한 김지수 김 진 김진근 김진환 김충례  
김하리 김한성 김해성 김해인 김향자 김현애 김현진 김화순 김효식 김희국 김희현  
나승길 나현대 남택우 류미아(2개월) 류은숙 림구호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민성호  
민 영 민영미 박경수 박경혜 박미성 박민서 박봉희 박상호 박소민 박승한 박연미  
박은봉 박종양 박종인 박주연 박진욱 박진희 박하순 박하영 박한창 박해철 박혜진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방애순 배우주 배춘실 변연희 서보혁 서영미 서예원 서유미 서인규 서창석 서창호  
신소진 신순단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송금심 송민영 순상환 신근아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신필중 신해술(2개월) 심상준 안병순  
안지성(2개월) 안희옥 양계택 양금순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양희운 어익선 여혜숙  
연선민 오근갑 오낙영 오미정 오 선 오정규 오지연 오태경 오혜경 오미정 우성란  
원웅호 유나리 유숙경 유영철 유정애 유종석 유형걸 유근섭 유동현 윤사중 윤성림  
윤수애 윤영수 윤영일 윤은섭 윤호상 이강산 이경목 이경아 이경옥 이경은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기도 이기영 이기자 이두우 이봉국 이삼미 이상재 이상훈 이선욱 이선재  
이수철 이순혁 이송무 이아름 이영숙 이영주 이 윤 이윤석 이은성 이재갑 이재필  
이정숙 이정숙 이종수 이주영 이주희 이형수 이수정 이혜진 박승렬 이화연 이화정 임동원 임미경  
임보라 임수아 임순례(2개월) 임인식 임창혁 임진영 임태환(최영숙) 임호일 장경도  
장기준 장남희 전기호 전보현 전영란 정광진 정김경숙 정동기 정상현 정성일  
정성채 정소연 정수용 정연선 정영훈 정원진 정준영 조계성 조순금 조영희 조우영  
조은화 조화순 주혜원 진유식 차운석 차정운 채운석 최대욱 최명호 최문숙 최삼술  
최석희 최성민 최아람 최영환 최원 최원태 최정원 최종미 최향숙 최현민 한문덕  
한상기 한상국 한석희 한종현 한현실 한호석 허명석 현동식 형복순 홍정희 홍지은  
홍희덕 황금석 황덕호(2개월) 황순하 황 완 황윤미 황철우

#### 순천평통사

##### [1-2월]

고성식 김귀진 김경수 김대성 김동규 김동수 김병태 김 석 김영곤 김영래 김영순  
김용빈 김용재 김용태 김유옥 김이준 김민철 김정호 김종성 김종안 김준희  
김하성 김현정 김현주 김형석 김효숙 나경아 류보은 문영태 문영훈 문재경  
문영렬 박광남 박귀주 박병성 박상욱 박선택 박성호 박성훈 박영주 박옥희  
박은혜 박정훈 박종삼1 박종삼2 박종열 박종택 박지호 박태기 박필수 배경섭  
백선미 손승상 손운성 손준모 송담숙 신근홍 신선식 신원식 신한형 심상욱 안병일  
양순규 오대성 오옥목 오정훈 오태현 오하근 우영미 유병우 유옥상 유진이  
윤성근 윤종완 이겨라 이경은 이귀엽 이규학 이기호 이민재 이상대 이애란  
이옥자 이정승 이종술 이춘식 이형성 이형민 임미정 장복식 전성필 정길준  
정상호 정양호 정영동 정홍운 조대훈 조영식 조정숙 조종철 조희열 지영일  
차복태 최미나 최병태 최상진 최성진 최영재 최희진 한혜영 허규희 허남필

#### 익산평통사

##### [1월]

고은순 박은경 김대성 김수일 김영일 김영재 김영호 김유순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진 류일렬 문영만 민 찬 박대수 박두식 박수빈 박영선 박영현 박영희 박용호  
박은경 박지현 박창신 박해영 배병욱 백낙진 서 용 신귀백 심경희 오기주 우종완  
유미정 유재동 유희탁 이근수 이병식 이봉미(조원일) 이상문 이석근 이은경 이장우  
이종민 이종구 이진규 이화춘 임탁균 장종수 전규철 전미영 전성식 전호정 정수진  
정운송 정운송 조가비 진창호 채운석 최명관 최미애 최민욱 최영미 최인경 최재철  
최형민 홍지훈 황영하 황의성 황인철

##### [2월]

강정혜(정병훈) 고은순 박은경 김대성 김동우 김수일 김영일 김영재 김영호 김유순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진 문영만 민 찬 박대수 박두식 박수빈 박영선 박영현  
박영희 박용호 박은경 박지현 박창신 박진일 박해영 배병욱 백낙진 서 용 신귀백  
심경희 오기주 우종완 유미정 유재동 유희탁 이근수 이병식 이봉미(조원일) 이상문  
이석근 이은경 이장우 이종민 이종구 이진규 이화춘 임탁균 장종수 전규철 전미영  
전성식 전호정 정운송 정운송 진창호 채운석 최명관 최미애 최민욱 최영미 최인경  
최재철 최형민 홍지훈 황영하 황의성 황인철

## 인천평통사

### [1월]

강동주 강명신 강병수 강영구 강한일 고상혁 고영남 고진희 고춘화 곽용순 곽준경  
구동훈 권세영 권오승 권창식 권혁호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경선 김규식  
김기수김미경(2개월) 김대용 김덕수 김도윤 김동건 김동훈 김두원 김명근 김미경  
김민서 김민정 김병미 김병철 김보희김희경 김삼기 김상익 김선경 김선미최현호  
김성만 김성식 김성태 김소망 김 속 김숙희 김승태 김시완(2개월) 김연희 김영순  
김용미 김용석 김우경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익균 김익숙 김익환 김인경 김일수  
김일중 김일희 김재용 김재우 김정자 김정하 김종갑 김종근 김종숙 김종욱  
김주식 김준태 김지수정시호 김지훈 김진숙 김차진 김천수 김태경 김태정 김학용  
김현경 김현석 김현숙 김현주 김현호 김형진 김혜정1 김혜정2 김효목 김희숙  
나혜련 남두현 남익현 노스텔라 류미애 모종이 문경근 문병호 문선희 문영춘  
문한나이은순 박광선 박근철 박달수 박동범 박미정 박병서 박병선 박상준 박수정  
박순길 박순이 박승주 박영기 박영민 박옥희 박용희 박원재박유순 박은주 박정숙  
박정윤 박종익 박 진 박창현 박창훈 박창근(이다음) 박현주 박현주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성백만 소병목 손선재 손애자  
손정민 손현철 송명은 송석우 송윤경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김민서 순영기(2개월)  
신나영(2개월) 신미경 신상훈 신원수 신윤례 신창균 신현범 신희철 심신아 심옥빈  
심이섭 심익현 심자섭 심재환 심현기 안봉한 안세수 안용원 안철우 안태건 양금렬  
양순옥 양승조 여영석 오미경(2개월) 오성기 오종훈 오창근 오태수(2개월) 오태호  
오혁한 오혜영 우민선 원 웅 유성국 유용현 유은영 유정섭 유정희 유종현 유진섭  
유한경 유한철 유현섭 윤도현 윤미희 윤성우 윤승하 윤영섭 윤호영 윤화심최장수  
이강혁 이강훈 이경원 이기는 이남희 이덕례 이동현 이만재(2개월) 이명주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정1 이미정2 이상훈 이성로 이성은 이세구 이수진 이숙희  
이승천 이승희 이안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윤형 이은영 이은직 이은희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화 이재학 이종민 이주는 이창근 이창우 이춘식 이충현  
이하선(2개월) 이혜민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형수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범  
인수범 임강민 임경희 임동렬 임병구 임재훈 임치우 장경선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운 장영애 장윤성 장정동 전경아 전혁구 정명락 정명숙 정미자이법재 정서진  
정승호 오수정 정원순 정유성 정준근 정대길 정필기 정현숙 정형서 정호근(2개월)  
정회경 정희진 조강희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태 조승현 조영정 조용수 조은숙  
조인휘(2개월) 조재호 주민식 주수남 주용택 주재풍 지현국 지현민 진재환 차건호  
최경태 최리주 최병중 최병준 최복례 최서일 최성록 최순규 최우식 최 웅 최재희  
최정목 최정호 최종락 최준배 최현숙 최환석 필갑빈 하경자 하혜정 한상균 한상원  
한신복 한연숙 황선하 한영순 한재수 한현진 한홍준(2개월) 허문애 허필자 홍 중  
홍학기 황병태 황인철 황현숙

### [2월]

강동주 강명신 강병수 강영구 고상혁 고영남 고진희 고춘화 곽용순 곽준경 구동훈  
권세영 권오승 권창식 권혁호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경선 김규식 김기수김미경  
김대용 김덕수 김덕중(2개월) 김도윤 김동건 김동훈 김두원 김명근 김미경 김민서  
김민정 김병미 김병철 김보희김희경 김삼기 김상익 김선경 김선미최현호 김성만  
김성식 김성태 김소망 김 속 김숙희 김승태 김시완 김연희 김영순 김용미 김용석  
김우경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익균 김익숙 김익환 김인경 김일수 김일중 김일희  
김재용 김재우 김지자 김정하 김종갑 김종숙 김종욱 김중문 김주식 김준태  
김중현(4개월) 김지수정시호 김지훈 김진숙 김천수 김태경 김태정 김학용 김현경  
김현석 김현숙 김현주 김현호 김형진 김혜정1(2개월) 김혜정 김효목 김희숙 나혜련  
남두현 남익현 노스텔라 류미애 류미애 모종이 문경근 문병호 문선희 문영춘  
문한나이은순 박근철 박달수 박동범 박미정 박미정 박병서 박병선 박병화 박상준  
박수정 박순길 박순이 박승주 박영기 박영민 박옥희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은주  
박점숙 박정윤 박종익 박 진 박진용(2개월) 박창현 박창훈 박창근(이다음) 박현주  
박혜정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성백만 소병목  
손선재 손애자 손정민 손현철 송경평정연실 송명은 송석우 송윤경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김민서 순영기 신나영 신미경 신상훈 신원수 신윤례 신창균 신현범 신희철  
심신아 심옥빈 심이섭 심익현 심자섭 심재환 심현기 안봉한 안세수 안용원 안철우  
안태건 양금렬 양순옥 양승조 여영석 오미경(2개월) 오성기 오종훈 오창근 오태수  
오태호 오혜영 우민선 원 웅 원종민(2개월) 유길중 유복희 유성국 유용현 유은영  
유정섭 유정희 유종현 유진섭 유한경 유한철 유현섭 윤도현 윤미희 윤승하 윤영섭  
윤호영 윤화심최장수 이강혁 이강훈 이경원 이기는 이남희 이덕례 이동현(2개월)

이명주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정1(2개월) 이미정2 이석주 이성로 이수진 이숙희  
이승천 이승희 이안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윤형 이은영 이은직 이은희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화 이재학 이종민 이주는 이창근 이창우 이춘식 이충현  
이충현 이혜민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형수 이혜경 이화정 인수범 임강민 임경희  
임동렬 임병구 임재훈 임치우 장경선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운 장영애 장윤성  
장정동(2개월) 전경아 전혁구 정명락 정명숙 정미자이법재 정서진 정승호오수정  
정원순 정유성 정한식 정준근 정대길 정필기 정현숙 정형서 정호근 정회경 정희진  
조강희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태 조승현 조영정 조용수 조은숙 조인휘 조재호  
주민식 주수남 주용택 주재풍 지현국 지현민 진재환 차건호 최경태 최리주 최복례  
최서일 최성록 최순규 최우식 최 웅 최재희 최정목 최정호 최종락 최준배 최현숙  
최환석 필갑빈 하경자 하혜정 한상균 한상원 한신복 한연숙 황선하 한영순 한현진  
한혜경 한홍준 허문애 허필자 홍학기 황병태 황인철 황현숙

## 전주평통사

### [1월]

강가현 강대권 강훈식 고내희 고은하 고이석 곽동순 국윤호 권동용 길성한 김미현  
김민준 김성한 김여진 김영호 김윤수 김은자 김일환 김재병 김정임 김주진 김진성  
김충만 김태순 김희찬 나영숙 문아경 박기순 박성열 박수배 방용승 백혜영 봉형근  
서경희 서광호 서광호 서 승 소춘수 송기춘 송미영 송호영 신귀희 신선화 심병호  
양경자 양동훈 엄경희 원명재 유영진 육숙경 이기봉 이기섭 이기환 이동백 이동주  
이상빈 이승렬 이승희 이영한 이인규 이재호 이종희 이지는 이형구 임애림 임익근  
전희식 장종철 전상호 정기동 정기철 장형원 조경희 조미숙 조정현 채주병 천호성  
최경애 최금희 최선희 최용기 최인규 최재현 최정목 한금수 황대성 황재현

### [2월]

강가현 강대권 강훈식 고내희 고이석 곽동순 국윤호 권동용 김미현 김민준 김성한  
김여진 김영호 김윤수 김일환 김재병 김정임 김주진 김진성 김충만 김태순 김희찬  
나영숙 문아경 박기순 박성열 박수배 방용승 백기룡 백혜영 봉형근 서경희 서광호  
서 승 소춘수 송기춘 송미영 송호영 신귀희 심병호 양경자 엄경희 원명재 유영진  
육숙경 이기봉 이기섭 이기환 이동백 이동주 이상빈 이승렬 이영한 이인규 이재호  
이종희 이지는 이형구 임애림 임익근 장종철 전상호 정기동 정기철 정형원 조경희  
조미숙 조정현 채주병 천호성 최경애 최금희 최선희 최용기 최은숙 최인규 최재현  
최정목 한금수 황대성 황재현

## 해남평통사

### [1-2월]

강대희 강태양 김경옥 김미희 김민하 김병옥 김상엽 김상철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은희 김은숙 나성균 노 란 문재식 문형규 민경진 박미옥 박병률 박영자 박은정  
박종삼 박태정 배종진 백중수 백형진 봉문수 서용석 신화균 안소희 안종기 양근재  
양동욱 양하승 염채연 오성재 오영택 오은숙 용영아 유문식 유상학 윤영식 윤예중  
윤준서 이명숙 이무진 이병채 이상규 이원열 이윤명 이정학 이종관 임현상 장미호  
장우광 정경철 정진아 조원현 주단우 최영수

## 김제 평통사(준)

### [1-2월]

구형보 김명순 김상봉 김성순 김승환 김영미 김영주 김익현 김지우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창화 김형기 김형애 김형택 김홍면 김현선 나인권 나현균 노경두 남금윤  
문병선 박기주 박상균 박병태 박원용 백창민 서정석 소광석 손은하 신동우 안진상  
오덕원 오미화 오인근 유성룡 유재흥 이소정 이연구 이윤만 이은경 이현숙 이희곤  
정현문 최고원 최종일 하성애 황혜정

## 성남용인평통사(준)

### [1-2월]

김민하 김영순 김종국 김종수 김준기 김준표 김춘식 박광범 박종만 서덕석 성백만  
신종수 원형석 이순선 이용원 정선희 정자혜 조주현 지경필 최병철 최재철 하성주  
허남태 황주연

## 대전충청 지역 회원

### [1월]

가명현 강경선 강나희 강대훈 강정혜 강정혜 강홍순 강희운 고광성 구분중 권현영 김용수 김용수 김경숙 김규원 김기현 김도석 김동희 김미숙 김미연 김복실 김상미 김선미 김성희 김언순 김오경 김재길 김정이 김정희 김진수 김진양 김진옥 김홍업 김홍수 김홍수(아산) 나백주 류기형 문성호 민학기 박귀환 박노찬 박상언 박원준 박준원 박필규 방춘성 백영기 서남철 서영희 서운배 성광진 성우현 손정희 송광성 송기는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관호 신성원 신주희 신현정 심규상 심우근 심전호 심정보 심주호 안창호 양덕춘 양은영 오대현 오대현 오수진 오완근 유관형 유단비 유성호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장환 유정원 유희상 윤병민 윤필희 윤효권 이건용 이광현 이기훈 이동은 이득우 이범영 이병구 이세중 이수연 이숙주 이은미 이은정 이재욱 이종명 이종호 이주호 이지민 이지영 이지영 이진구 이철수 이춘자 임병연 임응근 장도정 장명진 장창섭 장양배 전윤미 전혜련 정명진 정복준 정성현 정승길 정창석 정형영 정형원 정희대 조동준 조룡상 조만영 조병현 조봉현 조부활 조선이 조성미 조영주 조재천 조재형 조주형 조현중 차인기 채승병 최만정 추교화 풍천교회 한기형 한보석 한상열 한지연 함필주 허 연 허 호 황영식 황의대

### [2월]

가명현 강경선 강나희 강정혜 강정혜 강홍순 강희운 고광성 구분중 권현영 김용수 김용수 김경숙 김규원 김기현 김도석 김동희 김미숙 김미연 김복실 김상미 김선미 김성희 김언순 김오경 김재길 김정이 김정희 김진수 김진양 김진옥 김홍업 김홍수 김홍수(아산) 나백주 류기형 문성호 민학기 박귀환 박노찬 박상언 박원준 박준원 박필규 방춘성 백영기 서남철 서영희 서운배 성광진 성우현 손정희 송광성 송기는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관호 신성원 신주희 신현정 심규상 심우근 심전호 심정보 심주호 안창호 양덕춘 양은영 오대현 오대현 오수진 오완근 유관형 유단비 유성호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장환 유정원 유희상 윤병민 윤필희 윤효권 이건용 이광현 이기훈 이동은 이득우 이범영 이병구 이세중 이수연 이숙주 이은미 이은정 이재욱 이재욱 이종명 이종호 이주호 이지민 이지영 이지영 이진구 이철수 이춘자 임병연 임응근 장도정 장명진 장창섭 장양배 전윤미 전혜련 정명진 정복준 정성현 정승길 정창석 정형영 정형원 정희대 조동준 조룡상 조만영 조병현 조봉현 조부활 조선이 조성미 조영주 조재천 조재형 조주형 조현중 차인기 채승병 최만정 추교화 풍천교회 한기형 한보석 한상열 한지연 함필주 허 연 허 호 황영식 황의대

## 광양 지역 회원

### [1월]

강삼연 김부필 김용선 김용주 김정태 박용순 배영일 신덕희 신유순 안성은 이경자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장수 이정재 이종재 이현아(서영완) 이희정 전진희(천우주) 정인재 정일태 주경진 진덕미 황미경

### [2월]

강삼연 김용선 김용주 김정태 박용순 배영일 신덕희 신유순 안성은 이경자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장수 이정재 이종재 이현아(서영완) 이희정 전진희(천우주) 정인재 정일태 주경진 진덕미 황미경

## 무안 지역 회원

### [1-2월]

강성욱 김경태 김기주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옥길 김청필 문영란 박상석 박치우 송봉섭 이도선 이태석 임재철 정상철 정영란 정종석 정찬록 채미라 최병상 최종물 홍석주 홍응식

## 전남 지역 회원

### [1-2월]

강복현 고재성 곽길성 김광식 김남중 김대원 김미숙 김선태 김슬기 김행태 김현지 김희식 김희태 나옥석 노병남 노형태 류춘신 박경옥 박광운 박동화 박용두 박진숙 박태현 백영호 서정대 송만철 송호철 유관상 유현상 윤구현 이광수 이도현 이승현 정은정 조동근 채일손 최 성 최순옥

## 평택경기 지역 회원

### [1월]

강경남 공성경 권승훈 권차량 김성환 김용한 김주성 김택균 도영호 박성철 서맹섭 신종원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이가영 이경수 이수용 이양진 이은우 이인순 이진희 정만진 조명심 차치아론와라판 추영배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황영선

### [2월]

강경남 공성경 권승훈 권차량 김민수 김민수 김성용 김상용 김성환 김영호 김영호 김용한 김주성 김준기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박성철 방명수 방명수 서맹섭 신종원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이가영 이경수 이민재 이수용 이양진 이은우 이인순 이진희 정만진(평택) 조명심 차치아론와라판 채한석 채한석 추영배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황영선

## 평화통일연구소

### [1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일희 김지영 노재열 박진석 신정길 이정학 이진우 임승계 임종철 정규영 조현정 최소영

[회원 및 후원회비] 강수혜 강윤미 고희림 권기석 권순걸 권진복 권현영 김강연 김관일 김대성 김대송 김미령 김미정 김병준 김성태 김성환 김숙희 김시완 김시우 김영석 김영재 김영태 김영희 김유옥 김은주 김재송 김종희 김현미 김현숙 김호남 나명호 남궁갑 류승화 문규현 민경숙 박경수 박병을 박복희 박상희 박성진 박영희 박운옥 박태주 박하영 박해철 백정일 변연희 서경혜 서정찬 서종환 손범수 손윤희 손종욱 신재현 신재훈 신준규 심신아 심자섭 양명석 양종근 오미정 오혜경 오혜란 위육량 유영재 유정섭 유한경 윤송하 윤영일 이건규 이경옥 이기분 이기분 이기는 이기자 이기훈 이명옥 이명재 이미경 이미정 이석문 이성로 이양진 이왕재 이우성 이은영 이재호 이정숙 이종환 이주는 이형수 이혜연 임연희 장남희 장미호 전예경 정근수 정근수 정동석 정수경 정수영 정영훈 정영훈 정용진 정일태 정일태 정현희 조미향 조승현 주은형 주정숙 최병상 최병상 최윤정 한승동 한혜영 함수연 허명석 황윤미

[특별회비] 최소영 박기학

### [2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일희 김지영 노재열 박진석 신정길 이정학 이진우 임승계 임종철 정규영 조현정 최소영 홍영진

[회원 및 후원회비] 강수혜 강윤미 고희림 공동길 권기석 권순걸 권진복 김강연 김관일 김대성 김대송 김미령 김미정 김병준 김성태 김성환 김숙희 김시완 김영석 김영재 김영태 김영희 김유옥 김은주 김재송 김종희 김현 김현미 김현숙 나명호 남궁갑 류승화 문규현 민경숙 박경수 박병을 박복희 박상희 박석문 박성진 박영희 박운옥 박태주 박하영 박해철 백정일 변연희 변혜숙 서경혜 서정찬 서종환 손범수 손윤희 손종욱 신재현 신재훈 신준규 심신아 심자섭 양명석 양종근 오미정 오혜경 오혜란 위육량 유영재 유정섭 유한경 윤송하 윤영일 이경옥 이기분 이기는 이기자 이명옥 이명재 이미경 이미정 이석문 이성로 이양진 이왕재 이우성 이은영 이재호 이정숙 이종환 이주는 이현영 이형수 이혜연 임연희 장남희 장미호 전예경 정근수 정동석 정수경 정수영 정영훈 정용진 정일태 정일태 정현희 조미향 조승현 주은형 주정숙 천영희 천영희 최병상 최병상 최윤정 한상기 한승동 한혜영 함수연 허명석 황윤미

[특별회비] 변혜숙 최소영



## 2022년 1월 결산 보고서 (2022.1.1~1.31)

수 입		지 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① 정기회비	33,571,000	① 인건비	13,170,000
② 정기후원금	1,280,000	② 운영비	6,978,551
③ 부정기후원금	1,060,000	보험료	278,616
④ 사업수입	825,000	복리후생비	1,637,250
⑤ 기타수입	18,000	비품비	237,750
⑥ 전원 이월액	955	사무용품비(소모품비)	560,000
⑦ 차입금	3,000,000	수도광열비	628,645
<b>[수입 세부내역]</b> ① 정기회비 : CMS(33,251,000원), 계좌(320,000원) ② 정기후원금 : 들꽃향린교회, 향린교회, 씨앗기금 ③ 부정기후원금 : 박기학, 장남희, 김성열, 씨앗기금 ④ 사업수입 : 대관(평화통일연구소, 서울평통사) 등 ⑤ 기타수입 :		세금과공과	27000
		임대료	2,000,000
		정보통신비	160,280
		지급수수료	1,449,010
		차량유지비	0
		③ 사업비	4,268,440
		교육훈련비 <sup>1)</sup>	150,000
		국제연대사업비	0
		도서인쇄비 <sup>2)</sup>	248,000
		도서자료구입비 <sup>3)</sup>	28,400
		발송비 <sup>4)</sup>	202,560
		사업출장비 <sup>5)</sup>	757,200
		실천사업비 <sup>6)</sup>	324,000
		연대사업 <sup>7)</sup>	529,900
		행사진행비	0
		청년사업비 <sup>8)</sup>	489,880
		홍보비 <sup>9)</sup>	220,700
		회원사업비 <sup>10)</sup>	1,118,500
		회의비	199,300
		④ 지원경비	10,452,780
<b>[지출 세부내역]</b> 1)교육훈련비 : 교육장소 대관 2)도서인쇄비: 월간 회지 인쇄 3)도서자료구입비: 자료구입 4)발송비 : 생일카드, 회지발송 등 5)사업출장비 : 군산,익산,김제,전주 조직 지원 등 6)실천사업비 : 사드저지 실천등 7)연대사업비 : 소성리설인사, 배은심어머님장례위원, 쌍차노조 8)청년사업비 : 광주,논산 청년 출장, 청년모임 등 9)홍보비 : 페이스북 광고, 메일링, 망고보드 10)회원사업비 : 전남 회원사업, 회원경조사 등		지역교부금	9,662,780
		지역모임지원금	540,000
		자원활동가 지원금	250,000
		⑤ 부채상환	3,500,000
		⑥ 예비비	42,000
		⑦ 씨앗기금 (사무실보증금적립금)	1,140,000
		⑧ 잔액(월말통장잔액)	203,184
		수입 합계	39,754,955
		지출 합계	39,551,771

## 2022년 2월 결산 보고서 (2022.2.1~3.4)

수 입		지 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① 정기회비	33,587,000	① 인건비	14,090,000
② 정기후원금	1,280,000	② 운영비	7,021,996
③ 부정기후원금	7,600,000	보험료	283,776
④ 사업수입	2,250,000	복리후생비	2,233,750
⑤ 기타수입	52,300	비품비	250,750
⑥ 전월 이월액	203,184	사무용품비(소모품비)	306,980
⑦ 차입금		수도광열비	773,190
<b>[수입 세부내역]</b> ① 정기회비 : CMS(33,177,000원), 계좌(410,000원) ② 정기후원금 : 들꽃향린교회, 향린교회, 씨앗기금 ③ 부정기후원금 : 이일영, 김성열, 씨앗기금 ④ 사업수입 : 대관(평화통일연구소, 서울평통사) 등 ⑤ 기타수입 :		세금과공과	0
		임대료	2,000,000
		정보통신비	207,180
		지급수수료	916,370
		차량유지비	50,000
		③ 사업비	5,838,290
		교육훈련비 <sup>1)</sup>	150,000
		국제연대사업비	0
		도서인쇄비 <sup>2)</sup>	1,093,400
		도서자료구입비 <sup>3)</sup>	59,040
		발송비 <sup>4)</sup>	1,037,480
		사업출장비 <sup>5)</sup>	419,400
		실천사업비 <sup>6)</sup>	94,500
		연대사업 <sup>7)</sup>	0
		행사진행비	0
		청년사업비 <sup>8)</sup>	945,452
		홍보비 <sup>9)</sup>	201,832
		회원사업비 <sup>10)</sup>	1,536,280
		회의비	300,906
		④ 지원경비	10,935,000
<b>[지출 세부내역]</b> 1)교육훈련비 : 교육장소 대관 2)도서인쇄비: 월간 회지 인쇄 3)도서자료구입비: 자료구입 4)발송비 : 생일카드, 회지발송 등 5)사업출장비 : 군산,익산,김제,전주 조직 지원 등 6)실천사업비 : 사드저지 실천등 8)청년사업비 : 광주,논산 청년 출장, 청년모임 등 9)홍보비 : 페이스북 광고, 메일링, 망고보드 10)회원사업비 : 회원관리프로그램, 전남회원사업, 회원경조사 11)자원활동가지원금 : 지역사무국장(비상근) 설상여금		지역교부금	9,495,000
		지역모임지원금	540,000
		자원활동가 지원금 <sup>11)</sup>	900,000
		⑤ 부채상환	0
		⑥ 예비비	0
		⑦ 씨앗기금 (사무실보증금적립금)	7,010,000
		⑧ 잔액(월말통장잔액)	77,198
		수입 합계	44,972,484
		지출 합계	44,895,286

####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goodpeace@nate.com

####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 전주평통사

연 락 처 : 010-9590-1490 김영호

####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7933-1581 김경수

####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 논산평통사

주 소 : 3291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4길 5  
연락처 : 010-4488-7152 이도구

####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종수

####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2009@hanmail.net

####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 김제평통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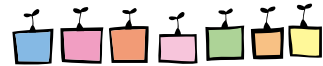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 대전충청모임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 무안모임

연 락 처 : 010-3645-2722 문영란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변호사 강대성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22년 3월 30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평독라이브 11화.  
**차기 정부는  
 평화를 원하는  
 청년들의 명을  
 받들라!**


다그락 다그락 다그락   
 청년들의 명이오! 에헴에헴

이번 대선은 그 결과를 떠나  
 특히 청년 세대가 돋보이는 선  
 거였다고 다들 입을 모아요!

그렇다면 평화와 통일을 바라  
 는 청년들이 곧 임기가 시작될  
 20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  
 은 무엇일까요?



**4월 7일(목) 저녁 8:30분,  
 평독라이브 11화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평화똑똑이 인스타그램 : @peaceknockknock

# 20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8차 운영위원 총회

일시 : 2022. 4. 2 (토), 오후 2시

\* 시간과 대면/비대면 방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평통사 대중화와  
청년회원 확대에 힘써 평통사를 강화하고  
한미일동맹, 콰드 가입을 저지하자!

- \*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등 총회 안건은 사전에 공유합니다.
- \* 회의시작 30분 전(13:30분)까지 온라인(줌) 접속 부탁드립니다.
- \* 온라인(줌) 접속 링크는 당일 오전 문자로 발송됩니다.